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스럽다

선거를 앞두고는 선심공약이 난무하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표만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적 복지·선심경쟁에 매달리다 보니 정당들의 정체성마저 혼란스럽다.

중도·진보를 자임하던 민주당은 야권통합이후 주의·주장만 놓고 보면 구 민노당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야권이 왜 통합을 하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이원화됐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여당도 당명 뿐 아니라 보수정당의 틀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좌편향으로 내닫는 우리 정당들에게 ‘보수’란 가치는 어디에도 발 붙일 곳 없이 길바닥에 나뒹구는 꼴이다.

과연 우리에게 ‘보수(保守)’할 가치가 이렇게도 없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며 점진적으로 진화해 나가자는 것이 보수주의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와 그 가치를 구현한 국가 및 체제의 안전보장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통해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 최빈국에서 신흥부국으로 부상하는 성취를 이뤄냈다.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촉발된 사회양극화와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보수정권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헌법적 가치의 실패나 효용 종료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표에만 눈을 밝히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면 지켜야 할 가치와 기준에 대

한 인식이 있는 지조차 의심스럽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늘진 곳에 대한 나눔과 복지가 확충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복지를 위해서도 나눌 수 있는 경제의 총량이 커져야 하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는 요즘의 ‘복지쓰나미’를 우리 경제가 과연 감내할 수 있을까.



성병욱

·본회 논설위원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주필

검쳐 재정적자를 급속히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결국 미래 세대에 희생과 부담을 전가하고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얼마 전 열린 52개 경제 관련 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도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학자·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포퓰리즘이 경제발전의 역동성을 앗아가고 경제의

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부실저축은행 피해자와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표를 의식해 금융질서와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원리를 부정하는 선심 입법이다.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수뇌부마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표 앞에서 원칙을 훼손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는 모습이다.

또 국회국방위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제스처로 전국 16개 군 공항의 이전을 요구하는 법률안을 만들었다. 막대한 비용 마련 방법이나 이전 대상지 선정 같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선 전혀 대책 없이 국방부에 미루고 선심만 쓰자는 것이다. 국가안보조차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다.

이런 무책임 행진의 클라이맥스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선거에서 이기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공개서한을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에 보낸 퍼포먼스였다. 노무현의 가치를 성취하겠다는 정당이 노대통령이 추진해 체결한 한미 FTA를 야당이 됐다고 해서 비준에 반대하다 못해 발효되면 선거에서 이겨 폐기하겠다는 서한을 데모하듯 미국대사관에 몰려가 전하는 것이 문명국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인가.

민주당이 집권후 한·미관계를 악화시킬 FTA 폐기조치를 강행할지도 의문이지만 선거를 의식해 이런 위태로운 퍼포먼스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정치의 수준이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국]

선거앞둔 與-野黨 정체성 혼란 左 편향 쓰나미 헌법가치 실종

최근 기획재정부의 추계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복지공약 65개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 5년간 340조원이란 천문학적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규모(325조원)를 넘는 액수다. 이런 추가 비용을 마련하려면 결국 증세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입을 닫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 공약의 성격상 급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인기 없는 증세보다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 노령화 등에 따른 복지비용의 자연증가분과

하향 평준화를 조장할 것이다. 유럽 선진국들이 당한 문제를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경고에서부터 복지를 확대할 때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기본명제를 잊지 말라는 비용의 중요성에 대한 당부 등 다양했다. 정치권은 달콤한 것만 주겠다고 하느라 쓴 약은 어떻게 먹일 것인지를 경제학자들이 계속 지적해야 한다는 다짐도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정무위는 부실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신용카드 가맹

중국은 탈북동포 복송 즉각 중단하라

대한언론인회 긴급성명 발표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회장단은 23일 아침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동포 복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성명은 “최근 많은 북한 동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강제 복송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나 다름없는 만큼 국제 난민협약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강제 복송을 즉각 중단하고 탈북동포의 자유의사에 따라 제3국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성명서

- 최근 많은 북한 동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굶주림과 인권 탄압에 시달리다 자유를 택한 동포들이다.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는 것은 다시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나 다름없다.
-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온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들은 엄연히 국제법상 난민의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난민협약 가입국인 중국으로서는 협약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마땅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정부는 중국정부로 하여금 탈북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해 줄 것과 난민협약 가입국인 중국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존중해 탈북동포들을 강제 복송하지 말도록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

대한언론인회 분과 위원회 구성완료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2월 13일자로 대한 언론인회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분과위원장들은 2월 22일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분과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전직)

1. 자문위원회

〈위원장〉조규진(경향신문 이사대우·수석논설위원)
〈간 사〉이배영(세계일보 편집국장)
〈위 원〉계창호(경향신문·문화방송 신문담당이사) 권영국(CBS 해설위원장) 박명근(MBC 속초지사장) 박영길(한국일보 편집국장대리) 안종우(연합통신 전무·전산국장) 임덕규(월간외교 회장·전 국회의원) 정홍택(한국일보 월간 편집국장) 홍승국(KBS 편집부장)

2. 전문위원회

〈위원장〉정형수(동아일보 도쿄특파원)
〈간 사〉김휴선(MBC 부국장)
〈위 원〉고학용(조선일보 이사대우·논설위원) 김 화(경향신문 편집위원) 심상기(중앙일보 편집국장·경향신문 사장) 어경택(동아일보 편집국장·이사) 유무정(MBC 해설위원) 임한순(연합통신 외신국장) 전신병(동화통신 정치부장) 황원갑(서울경제 문화부장)

3. 발전기획위원회

〈위원장〉김진기(KBS 워싱턴특파원)
〈간 사〉김윤재(구명 건이·세계일보 수석논설위원)
〈위 원〉김길홍(경향신문 편집부국장·국회의원) 김시복(한국일보 사회부장·문교부 대변인) 김지용(문화일보 편집부국장) 윤종보(안동 MBC사장) 이원창(경향신문 논설위원·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장기효(신아일보 사우회장) 조광현(KBS 해설위원) 황봉구(동화통신 정치부장·KBS 해설위원)

4. 복지기금 관리위원회

〈위원장〉강진형(한국경제 편집위원)
〈간 사〉정운중(상임이사 당연직·경향신문 논설위원)
〈위 원〉김호곤(조선일보 교열부차장) 문준호(동아일보 심의위원) 박문두(동아일보 영남취재본부장) 박연호(국민일보 논설위원) 신광식(KBS 해설



대한언론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분과위원장 간담회.

위원) 이선희(경인매일 논설위원) 조성하(아시아경제 교열 부장) 최시호(조선일보 기자)

5.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장〉김의수(내외경제 증권부장)
〈간 사〉한동희(내외경제 편집인)
〈위 원〉길윤석(서울경제 편집국장대리) 김기원(산업경제 월남특파원) 유한준(소년조선 취재부차장) 이대영(국민일보 편집국장 대우) 이우진(한국경제 사진부장) 전민조(동아일보 사진부장) 정창기(KBS 전주방송총국장) 주종환(조선일보 교열부차장)

6. 자격상벌심사위원회

〈위원장〉이창호(매일경제 편집부국장)
〈간 사〉최상목(동아일보 편집위원)
〈위 원〉서옥식(연합뉴스 편집국장) 송경섭(KBS 뉴욕지국장) 안종화(한국경제 정치부장) 유진수(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 정종표(KBS 창원총국장) 정희준(KBS스포츠국장) 조규만(한국경제 기자) 조천용(시사저널 부국장)

7. 사이버위원회

〈위원장〉이상호(문화일보 편집위원)
〈간 사〉한양인(서울신문 교열부장)
〈위 원〉김수남(어린이동아 부장) 여구만(경향신문 편집위원) 유용현(국민일보 부국장) 이남규(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승남(주간경향 편집부장) 이옥용(동아일보 편집위원) 장 옥(경향신문 뉴스메이커 부장) 홍용수(한국경제 논설위원)

8. 홍보출판위원회

〈위원장〉맹태균(경향신문 편집위원)
〈간 사〉박종서(서울신문 편집부국장)
〈위 원〉김용발(조선일보 기자) 백일진(충남일보 편집국장) 송선무(SBS 심의위원) 오건환(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KBS 파리총국장) 이달영(중부일보 편집부장) 이영일(문화일보 부사장) 탁성만(서울경제 정경부차장)

9. 특별사업위원회

〈위원장〉김세경(연합통신 편집부국장)
〈건강포럼 담당〉이보길 (KBS 해설위원)
〈간 사〉황우권(서울신문 부국장)
〈위 원〉김진걸(한국일보 체육부장) 이근양(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상우(경향신문 편집위원) 이학주(한국경제 편집부장) 장두원(KBS전주총국장) 정병교(대한일보 경제부차장)

10. 법규위원회

〈위원장〉김선기(KBS 뉴욕지국장)
〈간 사〉박준구(동아일보 편집부국장)
〈위 원〉권혁만(한국경제 정경부차장) 김경철(중앙일보 주일특파원) 김상수(KBS 대전방송총국장) 박승채(한국경제 사회부장) 윤재홍(KBS 제주총국장) 이민희(KBS도쿄특파원) 이현구(조선일보 편집부국장) 장석훈(조선일보 교열부차장)

11. 행사집행위원회

〈위원장〉나용경(한국일보 교열부장)
〈간 사〉정운택(서울신문 편집부장)
〈위 원〉고명진(한국일보 부국장) 김두호(스포츠서울 편집부국장) 김재근(조선일보 교열부차장) 이동훈(내외경제 편집위원) 이용화(동아일보 교열부차장) 이재권(동아일보 심의실장) 임상학(경향신문 교열부장)

12. 여성위원회

〈위원장〉신동식(서울신문 논설위원)
〈간 사〉이향숙(한국일보 문화부차장)
〈위 원〉김성묘(경향신문 레이디경향 편집장) 김후란(경향신문 문화부차장) 박동은(동아일보 기자) 박선영(문화방송 기자) 박순신(한국경제신문 교열팀장) 손진옥(연합뉴스 기자) 이태자(경향신문 문화부기자) 최금녀(시인·대한일보 부녀부차장) 

대한언론인회 18대 첫 이사회



대한언론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18대 첫 이사회.

대한언론인회는 2월 7일 오전 18대 회장단 취임 후 첫 이사회(131차)를 열고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2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히 금년도 사업계획 집행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임원진들이 광고유치에 적극 앞장서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홍원기 회장은 또 대한언론인회 정관 규정(제16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운중 상임이사(사무총장 겸임)를 다시 선임하는 절차를 밟고 가급적 지출요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논설진 보강 필진 다양화

대한언론인회 18대 첫 편집회의

홍원기 18대 회장 연임 이후 첫 편집회의가 2월 9일 11시 본회 사무실에서 편집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성낙오 편집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편집회의에서 홍원기 회장은 “대한언론은 회원들이 만드는 신문으로 회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계속 정체성을 살려 정론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새로 위촉된 ‘대한언론’ 회보 제작진용이다.

(괄호안은 전직)

〈편집고문〉이형균(경향신문 이사·편집국장) 〈편집위원장〉성낙오(영남일보 사장) 〈논설고문〉지용우(경향신문 논설실장) 〈주필〉문명호(문화일보 논설주간) 〈편집위원〉김영환(한국일보 파

리특파원) 박석흥(문화일보 편집국장대우) 신대근(문화방송 보도제작국장) 이규섭(국민일보 논설위원) 이보길(KBS 해설위원) 전용호(동아일보 어문연구팀장) 정일화(한국일보 논설위원) 조규석(세계일보 논설실장) 최희조(문화일보 편집국장) 호천웅(KBS 사회부장)

〈논설위원〉구종서(중앙일보 논설위원) 김광희(동아일보 이사·제작국장)김윤곤(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승웅(한국일보 주불특파원) 남시욱(문화일보 사장) 박정진(세계일보 논설위원) 박화진(서울신문 논설실장) 송두빈(내외경제 편집국장) 신동철(중앙일보 논설위원)여영무(동아일보 논설위원) 유재철(세계일보 편집국장·주필) 이광영 (한국일보 편집위원) 이성춘(한국일보 논설위원) 조봉균(KBS감사) 최병요(한국경제 편집위원) 한영탁(세계일보 논설위원) 

복지경쟁은 亡國의 지름길이다

‘복지’ 담론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에 ‘표심’을 노린 복지공약 경쟁으로 치닫고 있어서 나라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다.

복지포퓰리즘은 한마디로 ‘달콤한 마약’으로 비유된다. ‘공짜’라는 당의 정을 입힌 포퓰리즘이란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나라와 국민을 중병에 걸리게 하는 독성을 지니고 있다.

스위스의 경제석학인 발터 빌트는 그의 저서 ‘국가부도’(Sovereign default)에서 복지포퓰리즘의 해악성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복지국가들은 조직적인 무책임성의 체계로 발전하다가 결국 쇠락(衰落)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다.

그 후유증은 “자발적 실업자와 거짓 장애자, 거짓 환자, 조기은퇴 연금 수령자, 일 안하고 놀고먹는 노동자들을 양산해서 중국에는 국가재정을 ‘밑빠진 독’으로 만든다”고 경고했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남의 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복지 포퓰리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한 조만간 우리 발등에도 떨어질 불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당과 야당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산더미 같은 선심성 공약들은 절대로 다 실현될 수가 없는 선거용 구호들이다. 만약 그걸 다 실현하다가 빌트의 지적처럼 ‘국가부도’ 사태로 직결될 것이 뻔한 일이다.

정권교체의 호기회가 왔다고 잔뜩 부풀어있는 민주통합당은 ‘창조적 복지국가’를 모토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에 반값등록금까지 이른바 ‘3+1’ 복지정책을 내놓고 소요예산까지 추정(17조원)해 내놓고, 거기에 일자리창출과 주거복지및 취약계층 지원에 16조원을 계상해 놓았을 정도로 복지정책에 당운을 건 양상이다. 거기에서 민주통합당이나 새누리당 다 같이 46만명에 달하는 군 사병 봉급을 현재 9만원에서 40만~50만원 선으로 과격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자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 정치권이 공약으로 내건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2조85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것만 다 합쳐보아도 36조8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 산하의 복지태스



지용우

·본회 논설고문
·전 경향신문 논설주간

차에 민주통합당과 함께 타고 선심경쟁을 벌이고있는 광경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참패를 당한 한나라당(아니 새누리당)으로서는 올 선거의 최대 이슈로 등장한 ‘복지경쟁’에서 민주통합당에 또다시 기선을 제압당하면 끝장이라는 불안심리가 작

최근에 국가부도사태를 내고 구제금융을 목빠지게 기다리는 그리스가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가 아르헨 처럼 1980년까지 50여년간 최고수준의 국민소득을 자랑하던 부유한 나라였다. 그랬던 그리스가 1981년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이끈 사회당인 파속당이 집권하면서 무리한 복지정책의 남발과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기업들의 탈세와 은퇴한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지출의 증대로 나라가 거덜난 것이다. 일하지 않는 은퇴자들이 나라로부터 현직시절과 비슷한 연금을 수령한다니 나라가 지탱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리스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 나라를 위기에서 살리기 위해 임금인하와 허리띠 졸라매기 등 고통을 감내할 의지가 전혀 없고, 당장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참지 못해 정부기관에 불을 지르고 파괴를 일삼는 등 집단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한국이 IMF 금융위기때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면서 나라를 살리는 대열에 발벗고 나섰던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그리스뿐이 아니다. 금융위기의 쓰나미는 남유럽 전역으로 파급되고 있다.

바로 PIGS로 호칭되는 나라들(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이 국가부도의 대열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남유럽 나라들의 공통점은 방만한 정부의 재정운영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 복지지출의 과다 등으로 요약된다.

바로 ‘복지망국론’이 설득력을 발휘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복지 포퓰리즘’은 오늘 잘 먹기 위해서 내일 굶자는 논리, 기성세대의 행복을 위해 다음세대에 불행을 안겨주어도 괜찮다는 ‘파멸의 논리’나 마찬가지로는 관점에서 정치인, 지식인, 노동자, 농민, 종교인, 아니 국민 모두가 절대적으로 배격해야 할 중독성 마약이란 점에서 국민의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W]

재원 마련 방법없이 공약 남발 ‘마약중독’ 국민이 나서 막아야

크포스(TF)가 여야 정치권의 공약들을 전부 모아본결과 이들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최소 220조원, 최대340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야말로 나라의 기둥뿌리까지 뽑힐 액수다.

대체 어디서 그 막대한 재원을 염출해 낸다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복지공약’을 확대재생산해내는 데만 열을 올렸지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오로지 ‘표’만을 의식해 실현가능성도 없는 복지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일 수 없으며, 그것이야말로 우선 표나 얻고 보자는 저열한 ‘표(票)폴리슴’이란 말로 매도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도 포퓰리즘경쟁에 편승

우리를 더욱 실소케 하는 것은 당 이미지쇄신을 명분으로 당명까지 바꾼 새누리당이 그동안 자신들이 앞장서서 비판해 왔던 ‘복지포퓰리즘’ 열

용했을 법도 하다. 그런 사태를 우려했음인가.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뒤꿈치를 바짝 쫓아가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이념과 정체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는 것도 주목할 현상이다. 당 정강에서 ‘보수’ 표현을 삭제한 것이라든지, ‘포퓰리즘에 맞서’란 표현을 뺀 것 등은 혹시 새누리당도 ‘좌(左)클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정체성의 변질은 개명전의 한나라당에 애정을 갖고있던 마지막 보수 우군(友軍)들로 부터도 ‘등돌림’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복지포퓰리즘의 끝=망국이란 등식은 절대로 미래에 닥칠 가상론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결단난 나라들의 고통스런 경험을 통해 검증된 결론인 것이다.

굳이 세계 7대 부국에서 남미의 가난한 나라로 추락한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 것까지도 없다.

‘4·11 총선과 사이버 언론’ 대토론회

대한언론인회 3월19일 프레스센터서

제1주제 : ‘저널리즘에서 본 사이버언론의 문제점’

발표: 심재철 교수(고려대 미디어 학부장겸 언론정보대학원장)

제2주제 : 사이버언론에 대한 법적대응

발표: 이재교 변호사(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대한언론인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3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4·11총선과 사이버 언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논문은 심재철 교수(고려대 미디어 학부장 겸 언론정보대학원장:제1주제 ‘저널리즘에서 본 사이버언론의 문제’)와 이재교 변호사(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제2주제 ‘사이버 언론에



심재철 교수



이재교 변호사

대한 법적 대응’)가 발표하고 흥정기(문화일보 논설위원) 전희경(바른사회

시민회의 정책실장)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 최희조(세종대 석좌교수)씨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사회는 문명호(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분회 주필이 맡는다.

* 회우여러분께서는 이 기사로 초청장을 대신 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후에 회식 있습니다.

大韓言論人會

선거제도 과장 - 허위 막아야 한다

언론, 언론인은 그 사명인 빠르고 정확한 보도, 공정한 보도를 가이드라인(원칙, 지침)으로 삼고 있다. 만일 한 언론이 정확한 보도, 공정정보에서 벗어 난다면 그 언론은 이미 언론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상 이 보도 원칙을 완벽하게 지켜 나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사안과 경우에 따라 감정과 가치관이 개입될 수도 있고 또 자칫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언론사에 입사하게 되면 필자의 경우, 정확, 공정한 취재보도를 위해 1년이 넘는 견습 기간 동안 호된 훈련을 받고 이 기간 동안 취재해 쓴 기사는 신문에 나가지도 못했다.

저널리즘에선 공정성(Fairness)의 요체로 객관성(Objectivity)과 공평성(Impartiality)을 들고 있다. 공정성이란 기자 자신의 선입관 또는 편견을 버리고 취재대상을 동등하게 대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을 나타내려 할 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취재보도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 같은 저널리즘의 정도가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부딪치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인의 호의를 받거나 편파적 또는 개인이나 단체의 홍보물을 그대로 기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필자가 올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의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최근 공정성, 형평성 등 위반을 심의한 안건 중 몇몇 사례를 들어 본다. 지난 12월 지방의 한 일간지는 한 유력 정치인의 출마를 전하면서 “○○(지역)의 가장 큰 공헌자”라는 상당히 우호적인 제목을 달았다. 지적을 받은 해당사는 “연말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지난 1년간의 업적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에서 나온 말을 정리만 한 기사입니다”고 진술하고 있다. 12월 서울의 한 주간지 경우, 해당 선거구의 예비등록 현황을 보도 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단정적 보도를 하고 있다. 해당사의 해명은 그 선거구의 경우,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타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저널지에 실린 모당 국회의원 임후보자 인터뷰 보도는 ‘대기자’의 기사와



문명호

- 본회 주필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 전 문화일보 논설주간

가 작성 송고한 것으로 배포한 보도 자료 내용을 인용 사실대로 보도한 것이다”고 해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선거일 전 90일 부터 특정 후보자의 기고나 칼럼, 특정 정당 또는 후보 관련 광고 게재를 금하고 있는 심의 기준 위배 사례는 허다한 실정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사회에서 공정

일부의 보도행태는 저널리즘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재보도도 아니며 언론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앞서 보듯 후보자 개인 홍보물을 그대로 옮겨 싣고도 이를 취재기자의 기사라고 하는 데는 그저 아연할 뿐이다. 이는 신문을 비롯한 주간지 등 저널에서만 지적된 사례들이지만 방송이나 인터넷 등 전 미디어를 검색해 보면 그 범위와 위배 내용은 더 많을 것이다.

우리 사회엔 요즘 언필칭 언론이라고 하여 쏟아져 나오는 과장, 허위 ‘보도’들이 횡행하고 이 보도 아닌 거짓 ‘보도들’이 사실 보도를 넘어 빠르게 전파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정성 또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선 주의 권고 사과문 게재 등 (3월부터 경고 추가)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그러나 현행 제재 조치는 거의 솜방망이에 가깝다. 선진 사회의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언론인, 언론은 법적 제재에 앞서 그것으로 언론인, 언론으로서는 끝이다.

이에 이르러 생각이 미치는 것이 있다. 첫째는 과연 이 같은 행태로도 언론이 진정 ‘신뢰받는 언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책임 있는 보도와 신뢰 위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이 같은 행태들은 결국 우리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요즘과 같은 사회 상황에서 특히 공정정보, 정확한 보도와는 어긋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일부의 언론, 언론인에게 공정정보를 당장 실현토록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 언론인이란 명예로운 직업이다. 따라서 책임 있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정도(正道)를 가는 것이다.

공정-객관-공평성 외면 판쳐 사이비 언론행태 제재 강화를

니면 후보자의 홍보물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객관성이 결여된 한쪽으로 경도된 내용이었다. 그런가하면 한 지방지의 제목, ‘○○○의 힘’ 보도에 대한 공정성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낮 뜨겁게 느껴지는 소명도 있다. “조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다선 의원들조차 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한 데 대한 격려와 함께 상대적으로 그렇게 활동하지 못한 도내 다선 의원들에게 일종의 경종을 울려주는 차원에서 이 기사를 보도하게 됐다”는 점을 밝힙니다.” 지난 2월 지방의 한 일간지가 예비 후보자들의 공동 기자회견문을 ‘보도’한 내용은 기사가 아니라, 두 후보자가 발표한 첫 문장 “군민 여러분(에서부터)…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까지 기자회견문을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사가 보내 온 진술서는 “본 기사는 본사 소속 주재 기자

보도를 위한 지침은 엄격하다. 더구나 선거보도에 있어 취재 기자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요하고 있으며 후보자와 정당을 어떻게 취재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거보도와 관련된 보도 칼럼의 자수와 길이, 방송 횟수까지 정해 각 후보자를 공정하게 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이 엄격한 가이드라인은 자칫 잘못된 보도가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쳐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된 사례에서 보듯, 언론 피해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거나 위원회 자체 조사로 심의에 회부되는 건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아마도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 질수록 이 숫자는 더 늘어갈 것이다. 문제는 보도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 있는 것 보다 해당 언론사의 해명에서 보듯 심의 지적된 내용 중

영화평

‘부러진 화살’ 맞은 사법부

영화 ‘부러진 화살’이 국민 77%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법부의 과녁을 향해 시위를 당겼다. 정지영이 제작 감독 시나리오까지 쓴 이 영화는 200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김명호 교수의 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법정 드라마다. ‘부러진 화살’은 분명 창작물인 영화이지만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교묘하게 줄타기 하면서 피의자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일축하면서 판사 멋대로 끌고 가는 권위주의적인 사법부를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영화는 대학입시에 출제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부당하게 해고된 후 미국에 가서 살던 김경호(영화 이름) 교수 가족이 복직에 희망을 걸고 귀국을 서두른

데서부터 시작된다. 해직당한 서울대 교수가 복직한 뉴스를 듣고 김 교수는 복직의 희망을 품고 귀국한다. 그러나 김 교수는 복직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되자 담당판사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으로 위협하기에 이른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판사는 쓰러진다. 그리고 재판에서 담당판사의 피 묻은 셔츠, 복부 2센티미터의 자상, 부러진



김 화

- 본회 전문위원
-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화살을 수거했다는 수위의 증언이 이어진다.

사법부는 김 교수의 행위를 석궁테러로 규정,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피의자 김 교수는 실제로 화살을 쏜 일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법정은 권위적인 판사의 태도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김

교수의 고집불통으로 난항을 거듭한다.

법정의 논쟁은 ‘김 교수가 실제로 화살을 쏘았느냐? 오발이냐?’와 ‘담당판

사의 혈흔이 당사자의 피인가?’이다. 변호인은 담당판사의 속셔츠에는 혈흔이 묻었지만 외의셔츠에는 혈흔이 없고, 조끼엔 혈흔이 있는 점을 들어 항소심에서 담당판사의 혈액감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1심의 검사결과를 그대로 채택한다면서 기각한다. 변호인은 석궁발사도 격렬한 몸싸움 과정에서 빚어진 오발이라고 주장한다.

교도소에서 독학으로 법률공부를 한 김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 몇 조를 들어가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비타협 원칙을 고수하면서 판사와 법률공방을 벌이며 외로운 투쟁을 전개한다. 김 교수의 고집불통에 변호사도 하나 둘 씩 변론을 포기하지만 지방 노동변호사인 자칭 ‘양아치 변호사’가 마

5면으로 이어집니다.

사법부 국민신뢰 회복 급하다

일부판사의 재임용거부와 징계문제로 법원이 시끄럽다. 일부법원의 단독판사들은 단독판사회의를 소집하여 법원에 대한 평정제도와 재임용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봉주 형집행에 대한 시위가 법원 밖에서 행해지고 있고 영화관에서는 법원판결에 대한 비방장면이 방영되고 있다. 마치 법관의 재판이 편파적인 양 비난받고 있는가 하면, 법관의 독립이 위협받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사법에 대한 불신과 사법권에 대한 위협은 일부판사들의 품위손상과 편파적인 재판진행의 결과라고 하겠다. 한 판사는 72자로 된 판결문을 작성했는가 하면 어느 판사는 선거관련사건에서 매수하기 위하여 돈을 받은 사람은 3년의 징역형을, 준 사람은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어느 판사는 법원조직법을 위반하면서 합의 내용을 공개했는가 하면 어느 판사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법원의 명령거부나 집시법위반에 우선한다고 생각하여 집행유예로 석방하기까지 하였다. 허위사실유포나 뇌물사건에서도 자백 등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선고를 하곤 하였다.

어떤 판사는 SNS를 통하여 대통령을 비방하고, 한미 FTA 등을 반대하였고, 심지어 어떤 판사는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내기까지 하였다. 또 파산담당법관이 자기 친구와 형을 파산관재인으로 임명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법관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기에 징계계를 해야 마땅하다. 이들 판사들의 행위는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법을 왜곡하고 있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을 짓밟는 행위요, 집단적 이기주의에 따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국민들은 사법행정당국의 강력한 기강 확립·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법관윤리강령을 제정한 바 있다.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①사법권독립의

수호, ②품위유지, ③공정성 및 청렴성, ④직무의 성실한 수행, ⑤법관의 직무와 활동, ⑥경제적 행위의 제한, ⑦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2. 2.13 법관윤리지침서를 발간하여 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특별기고



김철수

· 서울대 명예교수

국민봉사기능,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관의 신분보장은 판사의 특권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양심은 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직분적 양심이

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관임용을 거부하고 시보는 다른 절차없이 면직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법관임명시에는 헌법예의 충성서약을 받게 되어 있으며 그동안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반되는 단체가입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급진주의자는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법관임용에서 헌법준수선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과거 신분에 대한 조사는 생략되고 있다. 그리하여 정당원 등이 판사로 임용되어 반헌법적인 중복좌파적 판결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 앞으로 대법원은 판사임용에 있어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며 인사위원회에서 판사의 적격성과 품격을 심사해야 한다. 현재는 연수원 졸업생을 처음부터 판사로 임명하여 일부 젊은 판사들이 뛰는 판결을 하여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앞으로는 범조일원화 원칙에 따라 학식 뿐만 아니라 헌법충성심이 있고 인격이 고매한 사람만을 판사로 임명하여야 하겠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수호기관으로 3권의 한 기둥이며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부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사회적 압력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선거법위반사건을 법률을 무시하고 3년씩이나 끌어 신속한 재판을 규정한 법률을 위반한다든가, 판결에 불복하는 단체의 시위를 방관하고 엄정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지는 못할 것이다. 법원 주변 100m이내에서는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법원이 고발조차 하지 않으며 판사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거소까지 이전하는데도 외부폭력에 움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사법부는 폭력과 정치의 시녀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법원은 국가의 법률보호기관이며 국민의 기본권보장기관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자정노력과 외부적 방어노력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에 위해서만 보장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4]

일부판사 품위손상-편파재판 법관임용 ‘헌법충성심’ 따져야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 법관윤리를 위배한 법관에 대한 징계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법원합의를 공개한 판사에게는 정직 6개월의 징계가 행하여졌으나, 자기 친구나 형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판사는 고등법원에서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확정되지 않아 아직도 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마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양 비난되고 있다. 그러나 비위법관에 대한 징계는 헌법적 요청이다. 법관은 징계처분으로 정직·감봉·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법관징계법은 그 사유를 규정하였는데 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②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연임이 거부된 판사는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기에 사전에 징계했어야 한다. 법관임기중이라도 법관징계를 철저히 하여 연임거부사유가 명확히 되도록 해야 한다.

법관의 신분보장은 판사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법의 대

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사회안정과 사회평화를 유지하는 직능을 다하는 양심인 것이다.

법관은 헌법질서유지기관으로서의 법원의 구성원이며 질서유지와 사회평화유지를 위한 법률의 집행자일 뿐이다. 법관도 공무원이기에 국민에 대한 종복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복리를 증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판사들은 헌법이나 법률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적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만 할 수 있을 뿐 이를 적용거부할 권한은 우리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경우 탄핵대상이 되며 처벌대상이 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당연 면직되게 되어 있다.

독일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에게 국가와 헌법에 복종하는 특별한 정치적 충성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무원제도의 근본원칙’이라 하면서 법관양성법에서 ‘법관이 되려는 사람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

4면에서 이어집니다.

지막 변호사로 선임되면서 재판은 활기를 띤다.

그러나 재판은 권위적인 판사의 “재판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판결도 알아서 할 테니 판결문은 나중에 보라”는 말과 함께 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재판은 이렇게 끝났지만 그 부끄러움은 계속될 것입니다”라는 변호사의 말로 영화는 끝난다.

이 영화가 상영되면서 영화 밖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김 교수의 석궁테러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별의미가 없다고 본다. 영화 내용이 사실이다, 진실이 왜곡됐다는 논쟁과 공방은 감독이 설정한 ‘주관적 진실’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 영화를 보면 불신 받는 사법부를 정공법으로 비판하기 위한 감독의 ‘주관적 진실’ 전개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극영화다. 실제사건을 소재로 했어도 허구의 세계를 그린 영화다. 사실과 사실왜곡의 진실게임은 영화 밖의 일이다. 사실이든 사실왜곡이든 그것은 감독이 지향하는 메시지에 태클을 걸어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왜냐면 영화이니가.

계속해서 이 영화의 내용을 화제에 올려놓고 “사실이다, 왜곡이다” 논쟁을 펼치는 것은 감독의 의도에 말려든다고 본다. 흥행의 불길에 기름을 더 붓는 격이다. 영화내용이 설령 사실을 왜곡했다 하더라도 영화 그 자체로 보면 되

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를 불신하는 국민감정을 강렬하게 전한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나아가서 이 영화의 파장으로 불신 받는 사법부가 자성의 계기로 삼았다면 이 영화는 사회적 메시지 전달을 훌륭하게 수행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객관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영화 ‘부러진 화살’이 사법부 불신의 바람을 타고 관객몰이에 성공하고, 영화를 보면서 왜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지 확인한 계기가 되고, 영화를 보는 동안 스크린에 몰입하면서도 극장문을 나선 후 기분이 개운치 않은 것은 대사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감독의 특징이념 노출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보안법은 아름다운가?”, “법은 다 쓰레기”, “재판인가? 재판이지”라는 대사뿐만 아니라 감독은 영화에서 석궁맞은 판사는 거짓말 하고, 담당검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은 위증한다고 일관되게 밀고나간다. 영화를 통해서 보여준 감독의 주관적 진실은 실오라기만큼의 흐트러짐도 없이 견고하다. 감독의 편향성이 느껴지면서도 관객들이 쉽게 영화에 동화되는 것은 사법부의 불신이 너무 두껍기 때문인지 모른다.

‘남부군’ ‘하얀 전쟁’을 연출한 능력 있는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이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면서도 보고나서 기분이 찻찻한 것은 분노는 넘치지 만 카타르시스(감정 배설)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4]

안보파괴 총선공약 철저검증 필요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문지마 식’ 공약들이 난무한다. 초중고생 아침 무상급식은 아무 것도 아니다. 좌클릭을 거듭하는 민주당은 한미 FTA 폐기, 제주도 해군기지 백지화까지 주장한다. 3월26일부터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논의하려고 50여국 정상들이 우리나라로 모이는 핵안보 정상회의도 반대한다. 안보를 물어뜯는 사상 초유의 득표전이다.

신용불량자 채무 탕감, 대학교 반값 등록금, 만 5세 이하 어린이 유치원 등 보육료 전액 지원, 사병 월급 40만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료 지원이나 장교와의 월급격차를 감안한 사병 월급 현실화는 수궁도 간다. 기획재정부는 여야의 공약을 죄다 실현하려면 5년간 220조~340조원이 든다면서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정부의 빚이 늘어나서 겪는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가 정치인들에게는 남의 얘기인가. 국회가 ‘경제 민주화’를 원한다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법제도를 만들어 누구나 창의와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켜 부를 창출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한다. 본연의 입법기능을 소홀히 한 채 한 눈 팔다가 선거철이 되니 표를 의식해 부자에게까지 추파를 던지는 무차별 복지 포퓰리즘은 가장 부조가 필요한 빈곤층 집권지원의 기회를 앗아간다.

득표 포퓰리즘의 압권은 부실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을 소급 구제하기 위해 기존 5,000만원 상한선의 예금자보호법을 무시한 국회 정무위(위원장 허태열)의 저축은행특별법안이다. 신문들은 좌우 계열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이를 비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행사마저 시사했다. 4·11총선에 불출마하는 안형환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수탈해 오늘 표를 사겠다는 것이냐. 이기적인 대중의 양산과 흥행 정치인의 득세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12일 사설에서 “이 나라 정치권은 표만 되면 나라 기둥이며 지붕까지 뜯어다 내다 팔 태세다. 어떻게든 먼저 자기들 금배지 지키고, 정권을 차지한 뒤 나라는 그 다음에 챙기겠다는 태세다. 여와 야가 나라를 망쳐놓기로 합심한 모양”이라고 공격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21일 ‘주제 넘은 재정부의 복지공약 검증’ 사설에서 “여야 정치권이 앞다퉀 복지공약을 내놓는 것은 시대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세수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이다. 재 정부가 편벽되게 대차대조표만 들추면서 정치와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주한미군 시설마다 쫓아다니며 ‘나가라’고 악써온 상습 반미 시위꾼들은 제주 해군기지처럼 우리 국방력을 키우는 사업마저 견어쳤다. 민주당은 자신들 목적이 노 전 대통령이 가려한 길인지 아니면 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상습 반미 시위꾼의 길인지를 분명히

문화일보는 “문재인 이사장을 비롯한 야권 총선 희망자들이 한미 FTA를 반대하려면 노 전 대통령과의 절연부터 선언하는 게 최소한의 염치나마 지키는 길이다”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한미 FTA의 ‘집권 후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공박했다.

20일 한 토론에서는 “자신들을 폐족이라고 자칭할 정도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분들이 다시 모여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화일보는 “한미 FTA의 상징적 인물인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영입에 비대위원 대다수가 반대나 신중론을 펴고 있다. 한미 FTA는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대표하며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회주의·패배주의부터 극복하고 국민에게堂堂하게 심판받는 게 정도”라고 압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나 제주해군기지 건설, 원자력발전은 국가발전의 미래를 위한 것이며 정치논리로 싸울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다”라고 단언했다. 한명숙·유시민 대표나 이해찬 전 총리처럼 자신들이 한 말을 잊고 국가안보까지 걸고넘어지는 세력들은 되돌아보아야 한다.

선거를 앞두면 정당과 정치인의 본색이 드러난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부정한다. 언론들은 시시콜콜한 문제로 지면을 낭비할 게 아니다. 후보자들의 단순 지지율이나 출마할지 안할지 모르는 사람을 놓고 “몇 % 지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경마식 중계를 할 일이 결코 아니다. 먼저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도록 국가존립의 근본문제인 안보에서부터 이들의 주장을 정밀 분석·검증하고 각 당과 후보자들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밝히는데 지면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상향식 민주 절차를 무시하고 중앙당 차원의 몇몇이 주름잡는 밀실 공천 가능성도 잘 감시해야 한다. 그것이 신문이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4]

저축은행 법안 한목소리 비판 FTA - 해군기지에 다른 시각

정에 끼어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난을 타개하려면 감세는 기본이다. 나라 공간을 지키는 정부조직에게 ‘주제 넘는다’며 비난할 일이 아니다. 인기를 좇는 정당들은 무책임하고 유한한데 반해 정부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의원 수를 줄여할 판에 야합해 거꾸로 늘리려 했다.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인구 하한에도 못 미치는 세종시에 대해선 ‘충청권 민심’을 의식, 7월 출범에 앞서 1석을 미리 배정하고 있다. 현재는 인구편차 2 대 1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이 흐른 지금 3 대 1조차도 외시한다. 의원 1인이 미국은 70만 명, 일본은 26만 명인데 한국은 20만 명을 대표한다고 맹공했다. 비율격차 해소엔 의원 정수 감축이 정다. 걸핏하면 ‘현재에 제소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 대표 선출의 반 헌법성을 외면하는 것이 국회이다. 문화일보 사설은 국민 정서를 잘 대변했다.

제주해군기지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삼겠다고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6일 해군 측에 공사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노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위해 “어떤 평화의 섬에도 비무장은 없다”며 구체화했다. 1조 달러 무역대국이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고 외국군함의 위협을 견제하려면 국토 최남단 해군전방기지는 지정학적 타당성을 갖는다. 제주 해협으로 우리 선박만 연간 40만 척이 다닌다. 아덴만에는 500척의 선박 통행을 보호하려고 군함을 파견했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군 선장도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한다”고 개탄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 폐기를 불사한다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 한미 FTA도 노 대통령이 국가의 활로를 개척하려고 체결했다. 노 정권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는 책 출간을 계기로 9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ISD) 등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 가려서 대응하면 문제 많은 신자유주의 질서도 우리 미래에 꽤 좋은 판이 될 수 있다. FTA는 세계의 흐름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도전”이라고 말했다.

生活斷想 | 어느 중학교 졸업식

오늘 나는 중3짜리 손주녀석 졸업식에 다녀왔다. 분당 번두리에 있는 학교다. 올해 모두 480명이 졸업을 했다.

480여명을 한자리에 수용할만한 강당이 없어서 그랬는지 졸업식은 각각 학급별로 교실에서 거행되었다. 칠판에 대형 스크린이 걸려있고 앰프로 설치되어 있어서 본부에서 스크린과 앰프로 통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시시콜콜 이판 글을 쓰자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학교 졸업식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 교육계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았고 이를 개탄하고 분노를 감출 수 없어 이 글이라도 남겨두고 싶은 거다. 아침 10시부터 시작된 졸업식에 졸업생들은 각자 자기 책상자리에 앉아있고 학부모들은 모두 뒤쪽에 서서 자녀들의 영광된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앰프로 통



이학주

·본회 회우
·전 한국경제 편집부장

해 구령 되었다. 그러나 고작 6~7명의 아이들만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의식을 치렀을 뿐, 나머지 아이들은 서로 옆구리 쿡쿡 찌르고 킬킬대며 장난질에 열중하고 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 1절만 부르는데도 역시 6~7명만 따라 불렀을 뿐, 여타 학생들은 여전히 킬킬거리며 장난질이다.

국민의례가 끝나고 모두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식사(式辭)가 이어졌다. 남녀공학인 이 학교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번갈아 줄 지어 앉아있

7면으로 이어집니다.

‘나꼼수’ 욕설·막말 두고만 볼것인가

지난 호 방송시평에서 나꼼수 방송 애기를 잠깐 언급했으나 지난달 10일 SBS가 ‘시험대에 오른 나꼼수’란 주제로 벌인 시사토론을 시청하면서 ‘나꼼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스스로 ‘잡놈’ 표현

스마트 폰과 인터넷을 통해 몇 차례 나꼼수 방송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른바 총수라는 사람 등이 자랑하는 청취자 숫자에 나도 물론 포함이 됐을 터이다. SBS가 ‘나꼼수 문제’를 다룬 같은 날인 2월10일자 ‘나는 꼼수다’ 봉주 5회를 들어봤다. 방송시평을 쓰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들은 시작하면서 BBK 실소유주 헌정방송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봉주 뉴스라는 타이틀로 봉주 동정이란 것을 전한다. 이어서 봉주 단신이라는 것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청취자가 유권자 기준으로 1100만 명을 넘었으며 청취율이 30%이상이라고 자랑한다. 그 영향력은 조·중·동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 한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언론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도 아니며 책임을 물을 일도 없다고 편드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단한 언론 권력임을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데도 말이다.

앞 부분의 봉주 뉴스와 봉주 동정, 봉주 단신을 들으면서 생뚱맞게 전두환 독재 정권이 떠올랐다. 그를 멘토로 삼을 생각은 아닐 텐데 말이다.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땡전” 뉴스 대신에 “땡 봉주” 뉴스를 하겠다는 연습인가?

처음에는 욕설이 나오지 않아 의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졸라”라는 비속어가 튀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까” “씨발” 같은 욕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소위 “비키니 시위”를 비판한 보수 언론에 대해서는 “그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라는 막말을 퍼붓는 것이었다.

비키니 시위에 대한 궤변을 털어놓으면서 “우리가 잡놈이긴 하지만 무식하진 않다. 하하 씨발 하하하 씨발 우릴 너무 졸로 본다.”라고 내뱉는 것이었다. 제 버릇 개 못준다 했으니 어쩔 수 없나보다. 이어서 비키니 시

위에 대해 “약자인 여성이 자신의 몸을 정치적 표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소피스트적 궤사(贅辭)를 현란하게 구사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참아내며 방송을 들을 인내력에 바닥이 났다. 컴퓨터를 켜다. 스스로 잡놈이라 떠벌리는 잡놈 방송이 설

방송시평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
·전 KBS LA 지국장
·수필가

송’을 정파의 색깔에 따라 얼버무려 정의하고 감싸고 노회한 화술로 포장하는 말들이 듣기에 거북한 방송이었다.

단적인 예로 언론이라든가 응분의 권리와 책임이 따르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기된 ‘나꼼수 방송’을 언론으로 봐야하느냐는 논제에 대해 최홍재 대표는 접속자의 숫자나

메시지가 전해지지는 않았다. 답답하기도 하다. 뭐라 해도 좋다. 그러나 욕설이 예찬대서는 안 되며 거짓말이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욕으로 베풀할 사람이 있다면 하늘이 베풀을 칠 일이다. 거짓으로 돈을 벌려는 자는 거지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옛날 권선징악의 교훈은 두엄터미에서 썩고 있는 것일까.

‘나꼼수 방송’은 이명박 정권이 그만 둘 때까지 한시적으로 계속하며 목적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니 이명박 정권이 부패 정권이라는 하지만 독재 정권은 못 되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

희한한 사람, 허경영?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가 19대 대선출마를 밝혔다. 그리고 2월 16일 채널A의 ‘박종진의 왜도난마’에 출연했다. 방송을 통해 그를 봤다. 그는 대선 후보로 출연했나? 흥미의 대상으로 섭외됐나? 그는 기인인가? 기적의 남자인가? 아니면 정신병자인가?

그의 돌출발언, 황당공약은 그냥 재미있다. 욕설은 빠졌으니 귀엽기도 하다. 그리고 용모도 준수하니 말이다. 사회자도 계속 웃는다. 당황해서 인가? 재미있어서 인가?

그의 말을 들어보자. “기존정치에 환멸을 느껴 출마하기로 했어.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되면 일본·중국을 통합하고 아시아를 통일한 뒤에 남북을 통일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나아가 유럽과 아메리카를 아우르고 내가 세계제국의 황제가 된다. 이 말이야.”

그를 마냥 웃어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은 부분도 보인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결혼에 1억, 신생아 출산에 3천만 원을 격려금으로 주겠다. 검찰 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제1야당에 주어 공직자 비리를 전담시키겠다는 등의 공약은 일견 들어보직도 하고 웃길 것 여미게도 한다.

아무튼 세상이 큰 난세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욕설에 매달리는 잡놈에다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엉뚱한 말을 해대는 희한한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 [본문]

SBS 시사토론 어정쩡한 진행 채널A 허경영 출연 납득 안가

치고 있는 이 사회는 잡놈 사회이며 이 나라는 희한(稀罕)한 나라임이 분명한 것 같다. 멋대로 지껄이고 욕설을 퍼붓고 문제가 생기면 얼버무리는 식의 방송내용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나꼼수 방송’에 박수를 치며 광란적인 관심을 끄는 사회적인 분위기이다. 재미있으면 최고이고 인기만 끌면 OK다. 욕 잘하면 국회의원이 되고 잘 웃기면 그것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나라다. 이런 참혹한 사태를 빚는 책임은 부패, 무능정권, 집권욕에 함몰된 정치권 그리고 교육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있기에 치유는 어렵고 희망은 참담하기에 나라가 걱정이다.

듣기 거북한 노회한 화술

2월 10일 ‘시험대에 오른 나꼼수’란 주제의 SBS 시사토론을 지켜봤다. 진성호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안민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노회찬 통합민주당 대변인, 최홍재 남북청년 행동대표가 출연했고 김형민 앵커가 사회를 맡았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나꼼수 방

영향력을 보아 당연히 언론이라고 말했으나 안민석의원은 이명박 언론독재 권력의 산물이며 제도권 언론이 제대로 하지 못해 생겨난 결과라며 칭찬으로 일관했고 노회찬 대변인은 법적으로 심의 대상도 아니라고 두둔하면서 옛날의 탈춤이나 광대놀이처럼 카타르시스의 한 수단이므로 그럴 수 있고 괜찮다는 분위기의 의견을 피력했다.

진성호의원은 욕설과 무책임을 지적하면서 편향 언론이며 편향 방송이라고 주장했으나 당당하기 보다는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 딱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추려보면 언론의 기능을 하므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과 언론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큰소리로 귀에 남는 목소리들은 △욕을 하지 않으면 매력이 떨어진다. △언론 권력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기존언론의 통념을 깨뜨린 대박이다. △욕설문화 전파의 책임을 져야한다 등이었다.

그러나 방송시청의 결과로 분명한

로, 버릇없는 망나니로 길들이는 철딱서니 없는 부모가 더 큰 문제다.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런 아이들이 커서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온실에서 과보호 받고 개념 없이 자란 그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어찌 할바를 몰라 허둥대면서 “아버지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키우셨나요?” 원망하고 통곡을 할 때 쯤이면 나야 이미 이 세상 떠나 저 세상에서 침몰하는 이 나라와 우리의 후손들을 안타깝게 바라만 보고 있을 뿐 이미 죽은 몸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나라의 장래가 너무도 한심스러워 늙은이가 노파심에서 한 마디 했다. [본문]

6면에서 이어집니다.

다. 교장의 식사는 아예 들을 생각조차 없는 것 같다. 남학생이 뒤돌아 앉아 여학생과 시시덕거린다. 무엇이 좋은지 소리내어 웃는다.

또 어떤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게임에 열중하는가 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아이도 보였다. 교장선생님이 마지막 떠나보내는 제자들에게 남긴 사랑에 넘치는 귀중한 말씀은 허공을 맴돌다가 사라진 뜬구름이었다. 무엇보다도 숙연하고 경건해야 할 졸업식, 이렇게 산만할 수가...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현장이다. 이것이 머지않아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어린학생들의 진면목

(眞面目)일까. 그렇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 아이들에겐 태극기도 애국가도 없다. 국가의식(國家意識)도 애국심도 찾아볼 수 없다.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감싸 줄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걸 철없는 아이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중3때는 교련시간에 목총을 올려 메고 군사훈련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태극기와 애국가를 존중하는 국민의식 교육을 받았다.

애국심도 키웠고 나라를 지켜야한다는 자주국방의지도 이때부터 나의 의식 한가운데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모 방송국에서 토요일 아침에 방영하는 ‘남북의 창’에서 북한 어린이

들이 절도 있게 군사훈련을 하면서 “때려잡자. 미제국주의놈들, 남조선의 역도들, 위대한 김정일 위원장님...”하면서 적개심을 불태우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장면을 종종 보아왔다.

놈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의식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을 북한처럼 꼭두각시로 키우자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 나라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를 존중하는 의식구조는 일찌감치 심어 줘야 할 기초 필수과목이다. 지금 이런 아이들로 자라도록 방치해 온 교육자들도 문제지만 더더욱 큰 문제는 제자식 귀엽다고 “오냐, 오냐”하면서 아이들을 그늘 속의 콩나물

회우들이 펴낸 新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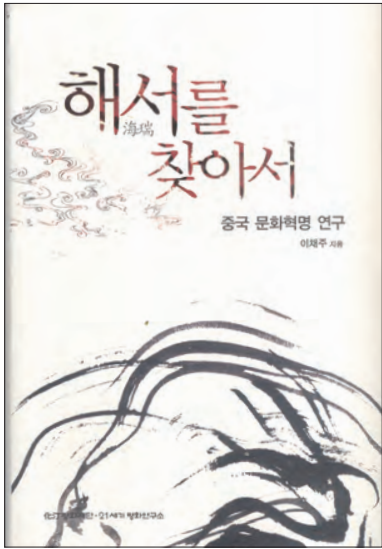
이채주 회우 ‘해서를 찾아서’

이채주 회우 (전 동아일보 주필·현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이사장)가 모택동(毛澤東) 이후의 중국 문화대혁명사를 집대성한 ‘해서를 찾아서- 중국 문화혁명 연구’를 펴냈다.

이책은 모택동이 주도한 중화인민공화국수립(1949)이후 3년 동안 3,500만명이 굶어죽은 인민공사의 실패전말과 문화대혁명 10년간의 대규모 피의 숙청과정, 그리고 오늘의 중국을 일으켜 세운 등소평(鄧小平)의 개혁 개방 정책등 중국 현대사를 현장감 있고 재미있게 조망하고 있다.

책 제목에 등장한 ‘해서’(海瑞)는 16세기 중국 명나라 시대의 청렴결백한 고위 관료로 “황제가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고 직언했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파면 투옥된 인물이다. 그런데 1961년 모택동의 측근인 유명한 역사학자 오함(吳晗)이 ‘해서와 관(海瑞罷官)’이라는 경극 대본을 썼고 북경에서 극찬을 받으며 공연되었다. 1966년 모택동은 이 경극이 인민공사 실패등 자기정책을 비판하고 있다고 판단, 오함을 비롯한 지식인들을 대규모 숙청하는 문화대혁명에 착수했다. 문화대혁명기간 10년동안 7,000여만명의 지식인이 희생되었다.

저자는 이 책 첫 머리에 해서의 생애를 되돌아 보고 역사학자 오함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책은 현대 중국의 해서가 되고자 했던 국방장관 팡덕희(彭德懷)가 모택동과 충돌하여 비극적인 생애를 마치는 애기부터 문화대혁명의 주역이었던 홍위병들의 농촌하방(下放), 문학을 반대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자결한 수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국가주석 유소기(劉少奇)의 부인 왕광미가 북경 청화대학(淸華大學)에서 홍위병과 대



결했던 장면 및 유소기의 비극적 종말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그리고 등소평의 청년시절과 모택동·유소기의 관계를 설명하고 등소평의 근대화 혁명 과정과 그의 후계자들인 호요방(胡耀邦) 조자양(趙紫陽) 호금도(胡錦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오늘의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 예를들면 중국공산당 1당 지배의 정통성 내지 대표성 문제, 고속성장의 지속가능성 여부,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및 차별문제, 그리고 소수민족의 분리주의적 경향등 중국의 정치 경제적 불안정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책 말미의 ‘중국은 어디로가나’ 장에서는 이채진 미국 클레어몬트 매카나 대학 정치학 명예교수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자체의 문제, 나아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1970년대말 동아일보 도쿄 지사장으로 4년동안 근무하면서 중국문화대혁명에 대한 자료와 관련서적을 많이 모을수 있었고 화정평화재단 21세기 평화연구소와 일본아사히 신문및 중국 현대 국제관계원이 공동주최한 국제학술회의 참여, 상해 임정 청사방문 등 중국각지를 두루 여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중국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회우는 지난해(2011) 1월 해서의 고향이며 무덤이 있는 중국남해안의 해남성 해주시를 부인과 함께 찾기도 했다. 이회우는 1998년 ‘이채주 칼럼집 - 부르투스의 눈물’을, 2003년에는 ‘언론통제와 신문의 저항 - 암울했던 시절 어느 편집국장 이야기’를 출간한바 있다. [출판사: 화정평화재단]

(동아일보부설 화정평화재단 발행·25,000원)

이태영 회우 ‘불멸의 혼 손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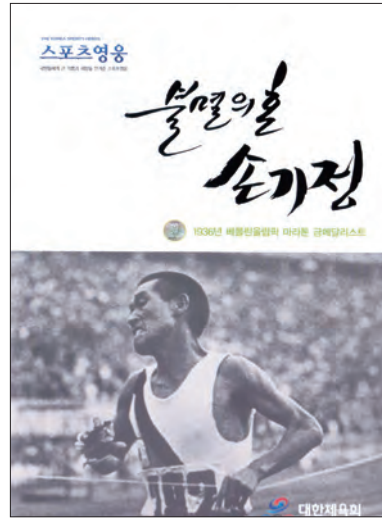
이태영 본회 부회장(전 한국일보, 중앙일보 체육부장, 문화사업본부장)이 대한체육회가 펼치는 스포츠 영웅 프로젝트로 제1권 ‘불멸의 혼 손기정’을 펴냈다.

대한 체육회는 한국 스포츠 발전에 혁혁한 공을 남기고 체육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들을 선정, 그들의 일대기를 펴내기로 하고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손기정 선생을 선정하였다.

저자는 체육회의 스포츠 영웅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여 손기정 선생의 일대기를 집필, 이번에 출간한 것이다.

KOC 국제위원인 저자는 일장기 말소사건의 주역이었던 부친 이길용 전 동아일보 기자의 뒤를 이어 손기정 선생의 삶을 밀착 취재하면서 두차례 출판과 박물관 건립 등 기념사업에 깊이 참여해왔다.

저자는 집필후기에서 손기정 선생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 50년을 회고하면서 “때로는 올림픽 무대에서 특히 마라톤경기 현장에서 그리고 남북의 만남 등 여러자리에서 자주 만났다. 그런 가운데 그의 올곧은 고집, 흥(興)과 한(恨)으로 점철된 삶의 굴



곡, 마라톤 전통이 계승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읽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제1부 ‘세계를 흔든 세기의 질주’ 제2부 ‘마라톤 인생을 열다’ 제3부 ‘고난의 언덕을 넘어’ 제4부 ‘운명을 건 승부’ 제5부 ‘성화는

타오르고’ 제6부 한(恨)을 뛰어넘어 혼(魂)으로’ 제7부 ‘보스턴 이어 런던으로’ 제8부 ‘서울코리아 환희와 영광’으로 짜여져 손기정 선생의 일생과 스포츠에 끼친 그의 족적을 남김없이 조망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집필과정에서 서울의 옛 양정고교 자리에 있는 손기정 기념공원을 몇 차례 방문, 월계관수(樹)와 손기정 흉상앞에 서서 흘러간 영욕의 역사를 돌이켜 보았으며 대전 국립묘지를 찾아 영혼 앞에 경배하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공을 초월한 대화를 이어간 것이다. 책 말미에는 손기정 연보와 각종대회 기록 그리고 역대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및 기록을 실었다. [출판사: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발행·비매품)

탈북동포 북송반대 단식투쟁 본회 회장단, 박선영의원 격려

대한언론인회 회장단은 23일 아침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동포 북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을 격려했다.

사진은 단식투쟁 중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본회 회우·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있는 본회 회장단이다. [출판사: 대한언론인회]

남재희 회우, KBS 1 ‘TV 자서전’ 출연



전’에 출연, 언론인·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40여년을 회고해 화제를 모았다.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사진) 회우가 KBS 1TV ‘한국현대사 증언 TV 자서전’에 출연,

남재희 회우는 특히 이 프로에서 1957년 3월 서울대 법학과 학생총회 의장직을 맡고 있을 때 ‘이강석 서울대학교 법대 부정 편입학’ 사건에 항의 법대생의 동맹휴학을 주도한 일과 온갖 언론 탄압 속에서도 날카로운 시각으로 많은 특종을 한 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과의 일화, 노동부장관 시절 민주노총 합법화에 얽힌 얘기 등을 실감 있게 증언했다. [출판사: KBS 1TV]

본회 회장단, 신문협회·방송협회 예방

대한언론인회 후원기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일행은 18대 회장단 출범이후 김재호 한국신문협회 회장(동아일보 발행인)과 김인규 한국방송협회 회장(KBS사장·본회 회우)을 각각 예방하고 언론계 현안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재호 김인규 회장은 “그동안 원로언론인단체인 대한언론인회가 자유언

론 창달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대한언론인회가 계획하고 있는 토론회 등 각종 사업들을 가능한 한 적극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문협회장과 방송협회장 예방에는 후원기회장, 김성배 윤기병 이병대 이태영 정기정 부회장, 정운종 상임이사 함께 했다. [출판사: 대한언론인회]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싶은데?

성공적인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한국관광공사가
국제회의를 지원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제회의 유치 촉진과 국내 개최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제회의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국제회의 지원 계획을 공고하오니,
주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국제회의 유치, 개최 의향이 있는 국내 주최단체

*지원대상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하는 회의로서
5개국 이상, 300명 이상(외국인 100명 참가) 참가,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지원내용 || 국제회의 유치, 개최 활동

|| 신청 일정 || 2012년 상반기 접수기간은 2012년 2월 20일(월) ~ 2월 29일(수)

*자세한 일정은 추후 웹페이지를 통해 공지

|| 보조금 신청방법 || www.koreamice.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관광공사 컨벤션팀 02)729-9552, 9557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국제회의 지원안내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당발 人脈 활용의 달인... “요즘은 이름만

회우초대석

〈44〉

인터뷰 글 · 사진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오전식(吳田植·78) 본회 회우는 인맥 활용의 달인이다. 李炯均 본회 편집고문은 그를 “대인관계의 천재”라고 평가한다. 그의 폭넓은 인맥은 대학과정을 세군데 거친 학맥이 뿌리다. 육군사관학교 13기로 입학했으나 몸이 불편해 중퇴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경찰전문대학(경찰대학 전신)에 들어간 것이 군과 경찰에 인맥의 뿌리가 깊은 이유다.

지난 2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댐부근에서 상경한 吳 회우를 프레스센터부근 음식점에서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라기보다 반주를 곁들여 두 시간 가까이 풀어내는 인맥에 얹힌 이야기를 들었다. 기자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吳 회우의 목소리엔 신바람이 묻어났다.

인맥의 뿌리는 학맥

-군인을 꿈꾸다가 법대를 다녔고, 경찰대학을 나와 기자가 된 동기는?

“경찰대학에서 범죄심리학을 강의하던 장병립 교수가 서울신문 객원논설위원을 겸했는데, 너는 영어도 잘하고 예쁘장하니 기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서울신문 수습기자 2기로 입사했어요. 金珧熙(本회 회우) 수습 동기는 육사와 고려대 동기로 흔치않은 인연이지요” 서울신문 사옥이 4·19혁명 때 불타 휴간할 때 吳 회우는 경찰국장 부속주임(경위)으로 경찰에 잠시 몸담아 해외유학을 갈 생각이었다. 당시 서울신문 李蕙蘊(本회 고문) 사회부장이 “신문사에서도 특파원으로 해외근무가 가능하다”면서 동아일보 사회부기자로 추천해줘 경찰복을 벗었으나 동아일보 입사는 무산됐다. “이혜복 부장과 함께 대한일보와 민국일보를 거쳐 서울신문 복간 때 다시 돌아왔다”는 것.

서울신문에서는 “육사 인맥도 있고 하니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출입하라고 해서 나갔어요.” 최고회의 발표문만 받아 기사를 쓰던 시절, 할 일은 많지 않았다. 광맥을 찾듯 인맥을 찾아 나섰다. 金炯旭 최고회의 내무위원집을 아침마다 찾아갔다. 사흘째 되던 날 출근하던 김형욱은 “너 뭐하는 놈이냐”며 지프에 타라고 했다. 보안사 요원처럼 스포츠 머리를 하고 드나들라는 언질을 받았다. 그 때부터 최고회의를 프리패스로 출입하며 김형욱과 친해졌다. 최고회의 출입시절 金斗煥 대위와도 가까워졌다. 전두환은 육사 2기 선배로 재학시절부터 알던 사이다. 당시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의 민원비서관이었던 全 대위가 朴 의장한테 데려가 인사를 시켰다. “박 의장이 이름을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고 묻기에 朴 田, 심을 植입니까고 말씀드렸더니 너 우리 편이야. 하더군요” 권력핵심에 파고드는 계기가 됐다.

金斗煥 중령이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장으로 청와대 외곽경비책임을 맡고 있던 1967년 무렵 全 중령은 吳 회우에게 “朴鍾圭 경호실장에게 부탁하여 朴 대통령이 30경비단에 시찰 나오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 부탁은 실현됐고, 吳 회우가 언론사 퇴직 후인 1974년 박종규 대한사격연맹회장 보좌

관 및 섭외이사를 맡은 계기가 됐다. 吳 회우는 1978년 국제사격연맹 조직위원들을 접대하며 아시아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멕시코를 누르고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데 기여했다.

‘월남 파병’ 특종 소스는 ‘朴統’

吳田植 기자의 ‘월남파병’ 특종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특종의 소스(Source)가 궁금해 물었다. 1965년 5월 朴대통령이 세 번째 미국을 방문할 때 吳 기자는 수행 취재기자로 따라갔다. 존슨대통령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인맥의 달인 吳田植 회우는 “기자촌 건립의 ‘오해와 진실’을 털어놓아 후련하다”고 말한다.

육사중퇴 高大·경찰대 졸업... 軍·경찰등 권력핵심과 故 朴대통령 총애받아... 기자협회 기금 얻어 기자촌

포인트 방문 일정이 잡혔다. 웨스트포인트에는 취재단 중 한 사람만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둘러보고 싶기도 했고, 타사에선 대부분 부장과 국장급 이상 간부급 기자들이어서 제가 수행 취재를 할 테니 선배들께서는 야구 구경이나 하고 계시라고 하면서 수행하게 됐어요” 그 때 朴 대통령은 “기자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다. “기자를 하나까 이렇게 각하를 가까이에서 수행 취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고 대답했다. 吳 기자는 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발표문을 보니 별게 없다”고 하자 朴 대통령은 연신 기분 좋게 웃으며 “존슨대통령의 요청으로 한국군 전투부대를 월남에 파병키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실을 귀띔해줬다”는 것. 월남파병의 대가로 막대한 경제원조는 물론 한미안보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종을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한 吳 기자는 당시 李厚洛 비서실장에게 돈을 얻어 뉴욕 수행기자단 숙소인 아스토리아호텔까지 택시를 타고가 서울 본사에 ‘한국군 월남 파

병’ 기사를 긴급 타전했다. 타전 후 선배들에게 당할 질책이 두려워 혼자 비행기를 타고 LA로 날아갔다는 것.

-특종을 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문공부장관이 경질된 이유는?

“함께 수행 취재를 갔던 쟁쟁한 선배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쳤고, 야당의 반발과 발표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인책이었지요.”

‘양수검장’ 지인 돕기 지략

吳田植 회우는 그 뒤 중앙일보를 거쳐 경향신문 정치부장과 부국장을 역임하면서 대부분 정치부 기자로 청와대와 국회를 출입하며 마당발 인맥의 폭을 넓혔다. 1963년 11월 26일 제3공화국 시절 6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으로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뉘어 치러졌다. 육사 8기로 5·16혁명 주체세력의 한 사람이었던 吉在號가 충남 錦山에서 당선된 이면에는 吳 회우의 지략이 한몫했다.

“길재호씨는 평안북도 영변 출신으로 황해도가 고향인 나와 같은 이북출신이었지요. 그는 민정이양 때 吉 씨들이 많이 사는 충남 금산을 정치적 고향으

로 염두에 뒀지만 야당 중진 柳珍山이 버티고 있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당시 李忠煥 의원으로부터 유진산 씨가 전국구로 선유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길재호를 만나 “당신 금산에서 출마해라, 단 조건이 있다. 치안국 감사관 염보현을 충남 경찰국장에 임명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길재호는 금산에 출마해 무난히 당선, 정계에 진출했다. 고대 동기 염보현은 충남 경찰국장을 거쳐 1987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 서울시장을 역임했다.

“길재호 의원은 공화당의 실세로 기자들의 민원을 열성껏 도왔다”고 회고한다.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했던 길재호는 ‘10·2 항쟁과동’ (1971년)으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경기도 양주에서 농장경영을 하며 여생을 보내다 1985년 타계했다.

기자협회 기금마련 뒷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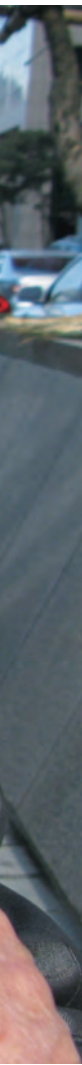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군사정권이 추진하던 언론윤리위원회법 저지를 위해 창립됐다. 하지만 기자들의 후생복지사업을 펴기에는 기금마련이 필요했

채로 밭갈며 살지요”

吳田植

· 전 중앙일보, 경향신문 정치부장, 편집부국장
· 전 서흥전자개발(주) 대표이사

이규섭(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다. 李厚洛 대통령비서실장을 찾아가 협조를 구했고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3선 개헌’ 날치기 통과(1969년 10월 20일) 후 야당의 공세로 이 실장과 김형욱 정보부장이 해임되는 바람에 약속은 무산됐다. “이후락 실장이 이임인사를 할 때 박 대통령은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물었고, 경황이 없었을 텐데도 ‘오전식 기자에게 약속한 기자협회 기금마련을 지키지 못하고

기자촌 건립 ‘오해와 진실’

대화가 기자촌 건립당시로 이어지자 목소리 톤이 높아진다. 60년대 후반 진관외동 기자촌 건립위원장을 맡은 뭇 회우는 “기자촌 탄생 주역의 한사람으로 오해와 욕을 먹기도 했으나 되돌아보면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한다. 기자촌은 1969년 무주택 언론인들이 북한산 자락 국유지를 매입해 조성한 마을로 1974년 420가구가 입주했다. 당시는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진관외리였으나 기자촌 조성사업 마무리 직전인 1973년 7월1일 서울시로 편입, 은평구 진관외동이 됐다.

첫 번째 오해는 평당 분양가에서 불



오전식 회우가 기자촌 건립위원장을 맡아 추진한 한국기자협회 택지조성 기공식(1969년 3월 29일)에는 정관계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른쪽부터 이병희 국회의원, 홍종철 문공부장관, 김성곤 국회재정위원장, 박지용 기협회장,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 김현옥 서울시장, 김진홍 주택은행장.

깊숙한 ‘인연’ 건립의 산파역

떠난다’고 말했다”는 것. 얼마 뒤 퇴근하여 술자리에 있을 때 청와대에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늦은 시간 점퍼차림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을 만나 “복장이 결례라 죄송하다”고 하니 “오전식이 언제 예의 찾았느냐”고 농을 던지며 내일 대변인실에 들르라고 했다.

다음날 宋孝彬 기자협회 회장(현 본회 감사)과 함께 대변인실에 들러 1000만원을 받아왔다는 것. “비서실장에서 물러나면서도 약속을 지켜 준 이후락의 의리가 고맙다”고 강조한다. “술을 마시다가도 내가 청와대에 호출되자 동료들은 ‘채흥사’ 아니냐며 각하 만나면 내 얘기 잘해달라는 우스갯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락은 그 뒤 주일대사를 거쳐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했고, ‘7·4남북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는 1973년 ‘윤필용사건’으로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됐다. 80년대 신군부등장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 은둔생활을 하다가 2009년 10월 타계했다.

거졌다. 오전식 주택건립위원장은 당시 이후락 비서실장에게 평당 70만원에 짓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락은 鄭周永 현대건설 사장을 불러 각하가 관심 갖는 사업이니 부탁한다고 당부했어요. 그 자리에선 알겠다고 하고 나온 鄭사장은 그 뒤 70만원으로는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평당 72만원에 대구 건설업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중앙무대 진출을 노리던 그 업체는 공사를 따주면 하겠다고 했다. 그 안건을 주택조합 총회에 붙였더니 90%가 반대해 무산 됐다. “오전식이 인센티브를 노린 게 아니냐는 오해가 저변에 깔려 있었지요” 결국 합자회사(신진건축)에 공사를 맡겼다. 그는 “기자협회에서 그동안 수고 많았으며 감사패와 함께 해외여행경비를 줘서 떠났지요. 홍콩에 들러 망중환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데 주택조합에서 SOS를 보냈어요. 주택은행이 자금부족으로 융자를 안 해줘서 공사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급거 귀국한 그는 주택은행장을 만났다. 주택은행장은 “금고가 바닥났다. 총무처와 교통부는 타 은행에 예금한 여유 자금이 있는 데 주택은행으로 돌려주면 가능하다”는 귀뜸을 해주었다. “청와대를 찾아가 전후사정을 설명하니 박 대통령은 총무처 장관을 불러 서민들 주택건설이 중요하니 주택은행으로 예금을 돌리고 결과를 내일까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

新春詩

오늘은 미래의 礎石

꿈이 있는 오늘은 아름다워라
매일 매일 해돋이가 새롭듯
하루의 시작은 신성하다

새벽마다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默言으로 묻는다 禪이다

젊은 정신은 나이를 이기는 것
어제는 지나가고 내일은 영원하니
오늘의 발걸음은 미래의 초석
겸허하게 자신있게 젊은 의지로 다져가자

아름다운 대지여
성취의 날이여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고
강물이 합쳐져 바다 되듯이
화해와 협력의 물길을 트자

정의로운 오늘 바르게 세워
내일은 오늘보다 희망이 있게
다음세대 다다음 세대 그 후대 年年歲
축복의 날들 열어가게
뜨거운 가슴 사랑으로 채워가자
큰 나라 사랑으로 지켜가자



김 후 란

·본회 회우
·전 경향신문 문화부차장
·시인
·‘문학의 집 서울’ 이사장

사는 재개됐다. 그 뒤 합자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 위기에 처하자 뭇 회우는 “또 박 대통령을 만나 정부보조금 5000만원을 특별지원 받아 기자촌 조성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술회한다.

두 번째는 “기자촌 입구의 땅을 오전식이 특혜 받은 것 아닌가”하는 오해다. 기자촌 들머리에 놀이터로 변한 묘역이 있었다. 그 땅 600평을 친구와 함께 1500만원에 매입한 뒤 나누어서 각각 집을 지었더니 특혜 논란과 함께 ‘기자촌 주택과 위화감을 느낀다’는 오해를 받았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지 않은 채 파견 나온 경찰관이 청와대에 까지 보고했다. 결국 정상적인 거래로 밝혀져 오해는 풀렸으나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한다.

‘도로 부지’가 낳은 황금알

그동안 뭇 회우에 대한 오해를 한방에 날리고 만루 홈런을 친 게 ‘기자촌 도로 부지 보상금’이다. 사연인즉 5만여 평의 기자촌 부지 가운데 도로부지가 1만5,000여 평에 이른다. 뭇회우는 “앞으로 자가용시대가 열릴 것을 대비하여 도로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전식이나 자가용 굴리지 우리에게겐 해당 없다고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한다. 40여년이 흘러 그 도로 부지가 150억대 땅으로 변했고 訟事로 이어졌다. 개발 당시에는 기부채납제도가 없어 기자촌 내 모든 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었기 때문.

재산권 다툼은 서울시가 기자촌을 누타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한 뒤 이곳에 사는 전직 언론인 37명으로 구성된

‘기자촌운영회’가 자신들이 주택조합을 승계했다며 땅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반면 주민들은 1973년 조합원 입주와 융자 상환 업무가 마무리되면서 주택조합 활동이 끝났다고 조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 활동이 끝난 뒤 도로나 체비지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거나 주민들과 논의해 소유권 문제를 정리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지난해 대법원은 ‘기자촌운영회’의 손을 들어줘 보상금을 차지하게 됐다.

보상금이 나오게 되자, 이곳에 거주해 사는 언론인 37명과 이곳을 떠난 300여명의 전직 기자들 사이에 보상비를 둘러싸고 소송까지 갔으나 원만하게 합의됐다. 150억원대의 도로 보상비가운데 기자촌을 떠난 300여명의 전직 기자들에게는 3000만원씩 보상비를 일괄 지급하고 기자촌을 지킨 기자들에게는 몇 곱절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 일단락 됐다. “포도주는 오래 숙성시킬수록 깊은 맛이 나듯, 도로 부지도 오래 묵혀두니 황금알을 낳았다”며 환하게 웃는다.

뭇 회우가 20대 중반부터 20여년간 신문기자로 보낸 시절은 현대사의 격랑기다. 그 시절 집권층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관계 진출은 하지 않았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아마 구속 됐거나 맘 편히 여행을 보내지 못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팔당댐 부근에 살면서 여름이면 이름 그대로 텃밭을 가꾸고, 가끔 상경하여 옛 동료와 술잔을 기울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산다는 것. 부인 方恩淑(75) 여사와의 사이에 1남 2녀. ㉞

서두에 지난번(16회)글 중의 잘못을 바로 잡으면서 옛일이 생각난다. 1962년 이턴가? 민국일보시절 작고한 남육기자가 전날 사회면 머리기사로 썼던 4·19의 거 학생 이야기(경무대 앞의 총격으로 다친 학생이 산속 움막에 숨어있다는 기사)가 거짓으로 밝혀졌다면서 그 내막을 속보로 넘기길래 사회면 편집기자였던 내가 ‘요구없는 정정’이란 작은 먹바탕에 한글자 컷을 곁들여 사회면 머리에 연속기사로 다룬 일이 있다. 정정 기사를 글머리에 신지 않는게 상례(常例)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다. 정정 기사를 머리(톱)로 다룬 경우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일로 알고 있다.

16회 글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로마제국 쇠망사’의 저자 ‘에드워드 기번’의 생졸년(生卒年)이 737-1794로 되어있다. 오타(誤打)가 아니라 오락(誤落) 한 자에 천년세월이 어이없이 흘러 기번은 1,000년이상 산 사람으로 되어 있으므로 800년 살았다는 중국의 팡조(彭祖)가 무색하다. 그리고 통풍(痛風)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퓨린체 함유량이 많은 식품을 열거하면서 짐승의 콩팥(신장)을 들었더니 누군가에 의해 콩과 팔으로(콩,팔)으로 갈라 놓는 바람에 난데없이 콩과 팔이 혐의자로 몰려 펼쩍뛰면서 억울하다 할 노릇이겠다.

* * * * *

인체는 대단히 취약한 조직체이다. 아차하면 어이없이 죽는게 사람이다. 늙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사리 무너진다. 겨울철에 찬바람이刮다 안긴 고뿔에도 가는 수가 있다. 질병사(疾病史)를 읽어보면 어떤 지역을 훑고 지나가는 역병(疫病)이 인종의 씨를 말리다시피하는 참혹한 재난을 여러번 볼 수가 있다. 페스트(흑사병), 콜레라(호열자), 매독,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이 그러한 예다. 이 뿐만 아니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끊임없이 외부의 습격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침탈(侵奪)에 곧장 허물어 지는 것처럼 보이는 인체가 의외로 견디고 버티는 재생능력을 알고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정교한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다. 여름에 더워서 체온이 상승할라치면 땀이 난다. 체온을 본디대로 되돌리는 조절기능이다.

작은 상처는 피가 흘러도 곧장 아물고 딱지가 앉아 피부를 수복(修復)한다. 남자의 가랑이 사이에 달려 있는 정자 주머니는 더우면 처지고 추우면 오무라들어서 그 속의 정자를 열의 변화로부터 보호한다. 그게 부성애(父性愛)는 아니지만 종족을 보호하는 자위(自衛)기능이다. 끊어졌던 아킬레스건(腱)이 도로 붙고, 부러진 뼈가 도로 이어지기도 하는, 이러한 수복기능을 미국의사W·B·캐논(Walter Braford Cannon·1871-1945)은 ‘몸의 지혜’(wisdom of the body)라는 저서로 엮어 놓았다. ‘몸의 지혜’ 초판본이 나온 것은 1932년, 나와 동갑이다.

장장 80년을 절판이 되지 않고 지금도 미국이나 일본에서 살 수 있는 통셀러다. 생리학을 전공하지 않는 나같은 사람이 명저(名著)로 평가할수 있는 대단한 이론인데 이른바 인체의 항상성(恒常性) 유지의 원칙, 곧 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s) 학설을 정립한 것이다. 책이 살아온 80년, 그 시간을 과학의 발전으로 살피면 쌍날개(複葉) 프로펠러

병은 낫는다 체험적 養生法 ⑰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 (上)



권도홍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비행기가 초음속 제트비행기로 진화한 세월이요, 수판과 초대형 컴퓨터의 차이다. 그런데 그 항상성 유지의 법칙은 지금도 완벽하다. 그 호메오스타시스 이론의 개념이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곧 인공두뇌학을 통하여 자동제어(制御)이론의 체계화와 응용에 쓰인다는 것이다. 몇 번이나 읽어도 순화문적인 이론이라서 만만찮지만 언제나 신선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것만은 확실하다.

배고프다, 목마르다고 하는 생리현상은 우리의 몸이 물질을 확보하기 위한 생체반응이다. ‘몸의 지혜’의 서두에 캐논은 ‘불안정한 개방계(開放系)로서의 생명’을 서술해 놓았는데 그 대목만이라도 읽어 볼만하다.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있다. 사람은 섭씨115도에서 128도의 건조한 고열에 노출되어도 체온은 평열(36.5도)을 넘지 않는다. 극지(極地)에 사는 포유류는 빙점하 35도라는 극한(極寒)에 노출되어도 체온에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항상성의 사례를 열거하면 분량이 너무 많다. 제13장 ‘생물이 자연

적으로 갖춘 방위수단’으로 넘어가자.

항상성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광의(廣義)의 방위기구의 하나이다. 콧구멍에 가령 날파리가 들어가면 근질근질하다가 재채기가 터지면서 날파리는 날아간다. 이처럼 강력한 배제(排除)의 반사가 호흡기의 입구 부분을 지킴으로써 이물(異物)이 더 깊은 부위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 내는 것이다.

취약한 인체가 지닌 놀라운 자위력

우리의 몸은 아주 불안정한 물질로 이루어져있다. 대단히 정교한 방법이 아니 고서는 측정할 수 없는 미세한 에너지의 파동(波動)이 인체의 신경을 타고 달리고 있다. 그 파동이 근육에 닿으면 거기에는 작은 변화에도 미묘하게 반응하는 물질이 있어 마치 도화선으로 발화하는 폭약처럼 강력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람의 감각기관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자극에도 반응한다. 코에 있는 감각 표면은 무게로서 공기의 1,000만분의1 밖에 안되는 바닐린(식품첨가향료)이나 1리터의 공기 중에 2,300만분의1 밀리그램 포함되어있는 메르가푸탄(유황을 포함한 화합물)을 맡아 낼 수가 있다. 눈은 1조(兆)분의5 에르그(칼로리로 바꾸면 2,000억분의1 칼로리)의 에너지를 느낀다는 증거가 있다. 이것은 가장 빠른 사진 건판(乾板)을 감광(感光)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3,000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신체의 구조가 불안정한 것은 생태 조건이 변했을때 앞서 든 그러한 기능이 즉시 변화하는 일로써 알수 있다. 이를테면 뇌의 혈관을 흐르는 피가 잠시 멎으면 뇌의 일부 작용이 정지하고 의식을 잃는 일을 웬만한 사람은 알고 있다. 만약 뇌의 피 흐름이 7~8분동안 완전히 멎는다면 지적(知的)활동에 필요한 어떤 종류의 세포는 크게 망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인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아주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물에 빠져도 쉽게 죽고, 가스중독으로 죽고 감전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없이 불안정하고 변하기 쉬운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은 어떻게 하든 항상성을 유지하고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도 불변성을 유지하고

상처를 입거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특별히 보호수단이 강구되어 있는 또 하나의 장소가 안구(眼球)다. 빼로 되어 있는 안전한 구덩이에 들어 앉았을 뿐 아니라 눈알 앞에는 재빨리 움직이는 눈꺼풀이 있어 위험할 때는 순간적으로 닫아서 눈알을 보호한다. 아무리 작은 먼지라 할지라도 눈알과 접촉하게 되면 당장 통증과 함께 눈물이 흐르면서 눈감박이가 시작됨으로써 먼지를 털어내는 유효한 기계적 힘이 주어지는 것이다. 누구나 겪은 이러한 생리반응이 몸의 방위기능이기도 한것인데 이런 것은 초보적인 것이고 더 알고 보면 상상을 넘어선다. 소장(12지장)을 일부분 잘라내고 접합(接合)수술을 했을때 위장의 출구인 유문(幽門)의 팔약근(括約筋)이 소장의 상처가 아무는 녀덱시간은 닫힌채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장의 내용물이 소화가 되면 유문의 팔약근은 저절로 열려서 소화물을 소장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는데도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닫힌채 소장의 상처가 아무는 동안 기다리는 이 ‘짓’은 누가 시키는 것인가? 여기엔 어떤 다른 힘도 개입될 여지가 없는 만큼 그것은 인체의 절묘한 자기제어 기능일 것이다. 놀랍다 아니 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표고(標高)가 높은 곳, 이를테면 14,000피트(약4,200미터) 높이의 산위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혈액 1입방 밀리미터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 수가 점차 불어나서 정상적인 약 500만개에서 700만 내지 800만개가 된다는 것이다. 공기가 희박한 곳에 적응하기 위해 불어난 적혈구만큼 산소 운반량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가지 딱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늘어놓아도 우리 같은 통상인이 병을 고쳐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없고, 단지 그런가하는 수공에 그치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이 얼마만큼 대단한 자위(自衛)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두는 것도 쓸데없는 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1987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은 일본인 생물학자 도네가와 스스무(利根川 進)의 연구표제 ‘항체의 다양성 생성의 유전학적 원리의 해명’은 노벨상 선고(選考)위원의 한 사람으로 부터 100년만의 대연구로 평가받은 성과다. 왜 또 골 때리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가 하면 도네가와 교수의 연구과제가 인체의 방위기능인 면역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과 물질’이라는 도네가와 교수의 대답집을 읽어 본즉 생명의 수수께끼를 푸는 분자(分子) 생활학의 핵심적인 것을 되도록 쉽게 풀어 놓았기 때문이다. ‘면역현상의 발견’이란 대목을 보자. 면역과 항체(抗體)에 대한 해설이다.

『면역이란 글 그대로 역병(疫病)을 면한다는 뜻이다. 어떤 역병에 한번 걸린 사람은 대개 두번 다시 그 역병에 걸리지 않는다. 한번 홍역을 치르고 나면 두번 다시 홍역을 앓지 않거나 걸린다 하더라도 가볍게 끝나는데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면역현상이라 부른다. 홍역 뿐만 아니라 모든 전염병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돌립병(전염병)에 걸리기 전에 그 병균에 약하게 감염시켜 놓으면 그 병에 두번 다시 걸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발상에서 생겨난 것이 예방접종이다. 그 시발이 18세기 ‘젠나’의 종두(種痘)라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젠나’는 우두(牛痘)의 고름을 접종함으로써 천연두(홍역)를 예방했다. 그로부터 약100년 뒤 프랑스의 파스퇴르가 그 원리를 확장해서 예방접종에 의해 다른 많은 전염병을 예방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방접종에 쓰이는 약독화(弱毒化)한 병원균을ワクチン으로 명명(命名) 했는데ワクチン(Vaccine)은 소 ‘(Vacca)’의 의미로 본디 우두의 종두(種痘)를 뜻한 것이다. 영어로 면역을 뜻하는 ‘immunity’는 형사책임의 면제(免除)를 뜻하는 면책(免責)의 뜻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면역는 역병(疫病)의 이환(罹患)으로 부터의 면제다.』

이야기가 지루하다. 그러나 이번 17회는 본론을 펼치기 위한 서곡(序曲)이라서 짧 수가 없다. 이 글을 읽는 이들이 면역학의 쉬운 해설서 한권이라도 읽었다면 모를까, 이식(移植) 수술로 일어나는 거부반응도 면역현상이요,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하면 피가 굳어(응고) 버리는 것도 면역반응이요, 페니실린 쇼크 같은 약물쇼크도 면역반응이다. 요컨대 몸속에 이물(異物)이 침입했을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좌우지간 그 이물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의 기구(機構)가 면역기구다. 면역기구는 본래 질병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가 아니라 이물의 침입을 막는 기구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病原體)도 이물이므로 면역기구의 공격을 받게 된다. 이처럼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침입이물을 일반적으로 항원(抗原)이라 부르는데 항원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항체다. 항체가 반응하지 않으면 인체는 무너진다. ㉠



이케다 다이사쿠 명언 100선

한마디 말에 담긴 강한 생명의 울림!

20세기 최고 석학 '토인비', 경영의 신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찬탄한 '이케다 다이사쿠', 그의 시집 · 수필 · 소설 · 스피치 · 대담집 등 400여 권에서 엄선한 100가지 명언!!

“인생의 선배들, 그중에서도 좀 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힘에 부치는 고단한 삶 속에서 깨달은 것도 있고, 인간에 대한 애정 어린 관찰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케다 다이사쿠 지음 / 값 10,000원



- *희망**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희망만 남아 있다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희망은 항상 출발이자 영원한 시작이다.
- *용기** 인생의 승리는 모두 용기에서 시작된다. 한 걸음 내딛는 용기, 좌절하지 않는 용기, 자신에게 지지 않는 용기……. 용기만이 벽을 부술 수 있다.
- *일** 사회의 터전에서 일으키는 투쟁에는 신용을 얼마나 쌓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과 성의, 진심밖에 없다.
- *정의** 참된 정의는 민중의 행복이고 평화여야 마땅하다. 어떠한 대의(大義)가 있을지라도 그로 인해 불행한 사람이 생긴다면,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溫故知新

‘홍길동전’ 창작 40주년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펴낸 것이 1605년. 벌써 400주년이 넘었다. 흔히 돈키호테는 무모한 사람, 저돌적인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의 대명사처럼 굳어졌지만, 정작 그의 매력은 다른 데 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 고상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 태도, 언행언동은 참을 수 없이 우스꽝스럽지만 사물에 대한 단순 명쾌한 대응자세 등이 그의 매력이다.

이제는 스페인의 국민문학에서 세계문학의 최고봉으로 우뚝 선 ‘돈키호테’와 비길만한 우리 문학작품은 없는가. 있다. 교산(蛟山) 허균(許筠)이 지은 불후의 걸작 ‘홍길동전(洪吉童傳)’이다. 필자의 취재 결과 허균이 ‘홍길동전’을 쓴 때가 ‘돈키호테’가 나온 시기와 비슷한 400년 전이었다.

홍길동은 시대를 앞서간 의적이고, 돈키호테는 시대에 뒤떨어진 편력기사다. 그러나 이 두 주인공은 불의와 폭력을 응징하고, 부조리한 시대에 맞서 싸우는 데는 형제처럼 닮았다. 다만 홍길동이 통쾌무비의 도술로써 탐관오리들을 징치하는 데 반해 돈키호테의 무술실력은 언제나 비극적 결말로 끝난 희극이란 점이 다를 뿐이다.

허균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교산 기슭에서 태어났다. 생가 애일당(愛日堂)은 이제 흔적도 없고, 대숲으로 변한 빈터에 해풍만 쓸쓸한데, 동해 바다가 바라보이는 그 자리에는 1983년에 세운 교산시비만 찾는 이들을 반길 뿐이다.

왕조사의 이단자 허균은 선조 2년(1569)에 외가 애일당에서 양친 허씨초당(草堂) 허엽(許燁)과 강릉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자는 단보(端甫), 자호 교산은 고향에 있는 산 이름에서 딴 것이다. 그의 부친 허엽에게는 아들 셋, 딸 둘이 있었다. 맏딸과 맏아들 성(晟)은 전설 소생이요, 둘째아들 봉(峯)과 막내딸 초희(楚姬)와 막내아들 균은 후설 소생이었다. 허균의 누나 초희가 바로 허난설헌(許蘭雪軒)이다. 난설헌의 시와 이름이 후세에 전해지게 된 것은 오로지 허균 덕분이었다. 허균은 난설헌이 27세 한창 나이로 죽은 2년 뒤 〈난설헌집〉을 편

찬한 데에 이어 임진왜란 때 명나라 시인 주지번(朱之藩)에게 이를 주어 중국에서 출간하게 되었고, 일본에서도 출판되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제적 베스트셀러 시집이 되었다. 허균은 한 번 보거나 읽은 것은 잊는 법이 없어서 누나의 시집과 작은형의 문집은 물론 자신의 문집인 ‘성소부부고’ 등을 모두 비상하게 뛰어난 기억력에 의지해 엮어냈다.

허균은 5세 때부터 형들의 어깨너머로 글을 익히고 9세 때부터 시를 지을 만큼 재주가 비상했다. 그는 학문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한테서, 시는 손곡(孫谷) 이달(李達)한테서 배웠다.

허균이 과거에 급제, 벼슬길에 나아간 것은 선조 27년(1594). 그러나 재주가 뛰어나고 자존심이 강하니 소인배의 시기와 모략이 끊임없었다. 그는 현실과 타협하기보다 불화를 택했다. 파면과 사직을 거듭하다가 벼슬살이 8년 만에 정3품 당상관인 사복시정에 올랐으나 또다시 파직당해 산수간을 넘나들며 풍류를 즐겼다. 허균은 포부는 컸으나 뜻대로 펼칠 수 없었고, 재주는 인정하나 사람됨을 알아주지 않는 관료사회의 편협함에 염증을 느꼈다. 자신이 세상의 비위를 맞추지 못한다고 여긴 그는 강호를 떠돌면서 재주는 있으나 불우한 서열(庶孽) 등 처지가 불우한 벗들과 즐겨 사귀었다.

조선왕조시대에는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첩의 소생이면 벼슬길을 막는 서열금고제도가 있었다. 나라는 비좁은데 아무리 경천위지(經天緯地)의 재주가 있어도 첩의 자식은 아버지를 아



황원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비라 부르지 못했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다. 허균의 스승 이달도 당대의 대표적 시인이었으나 서열이란 태생적 한계 때문에 평생을 술과 방랑으로 불행하게 보냈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비롯한 저작을 통해, 또는 벼슬길에서 이들의 편을 들어준 까닭이 거기에 있었다.

선조 36년(1604)에 황해도 수안군수로 나갔다가 1년 만에 쫓겨난 그는 3년 뒤에 부임한 삼척부사 자리에선 겨우 13일 만에 쫓겨났다. 재주가 빼어난 만큼 시기도 많이 당했고, 남의 시선을 꺼리지 않고 소신껏 행동했으므로 순탄한 벼슬길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는 유·불·선 삼교에 통달했지만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말도 했다. “성육과 식육은 하늘이 준 인간의 본성이므로 유교나 불교의 계율로도 속박할 수 없다. 나는 성인(聖人)의 가르침보다도 하늘을 따르겠다.”

1608년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새 정권에 끈이 없는 허균은 다시 벼슬이 떨어졌다. 또 2년 뒤에는 과거시험관으로 복직했지만 조카와 제자들을 부정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그 이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라도 함열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귀양이 풀리자 그는 부안으로 들어가 기생 매창(梅窓) 등과 더불어 변산의 여러 절경을 찾아다니며 풍류를 즐겼다. 그가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선계폭포 아래 정사암에 은거하며 ‘홍길동전’을 지은 것이 1612년 12월 부터였다. 또 썩어빠진 세상을 둘러엮고 새 세상을 만들고자 혁명의 꿈을 키운 것도 그 무렵으로 추정된다.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습에 응감히 도전한 쾌남ాయो 민중의 영웅이었다. 연산군 때의 실존인물 홍길동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재창조한 허균은 조선왕조시대를 반향으로 살다간 풍운ಾಯ이 이단자였다.

‘홍길동전’은 몇 가지 기록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최초의 한글소설이라는 점. 둘째, 조선왕조의 병폐의 하나였던 서열문제를 소재로 삼은 최초의 사회소설이란 점. 셋째, 주인공 홍길동이 의적이라는 점에서 반골소설이다. 넷째, 홍길동이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오는 실존인물이라는 점에서 실명소설이다. 다섯째, 홍길동이 갖가지 도술을 부리는 도가소설이기도 하다.

허균이 당시 실권자였던 대북(大北)의 영수 이이첨(李爾瞻)의 힘을 빌려 광해군의 조정에 들어가 좌승지·형조판서를 거쳐 정2품 좌참찬까지 오른 것은 오로지 광해군의 그늘에서 이이첨을 방패삼아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광해군 9년(1617) 허균의 역모(逆謀)를 고발하는 비밀상소가 연거푸 세 차례나 올라갔다. 이는 이이첨이 허균의 세력이 커져 자신의 강력한 정적(政敵)이 되기 전에 미리 썩을 잘라버리려는 음모였다는 설도 있다. 이이첨이 허균을 빨리 처형해야 한다고 압력을 넣음에 따라 그는 광해군 10년 8월 26일 서소문 밖 형장에서 능지처참을 당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곳으로 떠나고 말았다. 그해에 그의 나이 50세였다.

그러나 허균은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었다. 왕조시대가 끝나고 백성이 주인이 된 새 세상이 되자 역사의 무덤에 깊이 잠들었던 풍운아 허균, 미완의 혁명가 허균은 민중의 영웅 홍길동과 더불어 국문학사의 선구자로서 화려하게 부활했던 것이다.

그의 묘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매향리 수정산 기슭 양친 허씨묘역의 부친과 형들 묘 사이에 있는데 시신이 없는 빈 봉분이다. 이는 허균이 왕조사의 역적으로 능지처참을 당해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

2012 시산제 초대합니다

본회 산악회 3월 23일 북한산 삼지봉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정운종)는 임진년 새해를 맞아 올 한해의 무사 산행을 기원하는 시산제 행사를 갖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산제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산제장소 : 북한산 삼지봉 자락
- 집합일시 : 2012년 3월 23일(금) 오전 10시
- 집합장소 : 불광역(3호선) 2번 출구 대합실(구내)
- 산제시간 : 2012년 3월 23일(금) 낮 11시 30분
- 산행코스 : 북한산 둘레길 8코스 구름정원길(약 1시간 30분 소요)
(북한산생태공원~정진사~불광사입구~선림사 입구 산제 장소)

- 산제장소로 직접 오실 분 : 연신내역 3번 출구~불광사 입구~불광중학교 옆길
~(약100m 진행하면)~오른쪽의 넓은 밭 가로질러~시산제 장소
- 06번 마을버스 이용 = 연신내역 3번 출구~세종빌딩 앞에서 승차~불광중학교에서 하차, 시산제장소까지 도보로 약 10분

- 뒤편이 장소 : 연신내 명동보리밥집(전화 02-352-3392) 오후 1시
(연신내역 3번 출구 불광사방면 30m 세종빌딩 2층)
*부득이 시산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우는 뒤편이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 연 락 문 의 : 010-7276-6211(정운종) 010-3855-8624(이상호)
010-8461-5349(강진형) 010-2691-0084(나용경)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기업

한국남동발전은 청정 에너지 개발과 환경보전 노력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기술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의 놀라운 가치를 선보인 한국남동발전
이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 녹색성장의 힘을 전파합니다.
미래 환경을 선도하는 글로벌 파워리더- 한국남동발전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①

부정적 생각이 노화 촉진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노화를 촉진한다.” 얼마 전까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었다. 이 같은 상식이 최근 들어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나 이 보다 “건강한 정신이 육체의 건강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란 것이 최근의 의학적

연구결과이다. 특히 고령자일 경우 부정적인 생각은 곧바로 육체적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람이 화를 내면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며, 동공이 커지는가 하면 손이 떨리고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기쁘고 행복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고 원만해 진다. 화를 내는 것은 정신적인 활동이다. 육체는 화낼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화를 내면 육체가 반응한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건강해 지는 원리다.

나이가 들어도 남보다 젊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게 하는 것일까? 얼굴



이광영

·분회 논설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나이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살아 오는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양 그리고 삶에 대한 부정적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자들에 있어 부정적인 생각은 특히 노화를 촉진시킨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노화가 촉진될 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질병이 더 악화되고 건강상태가 더 나빠지며 수명이 단축된다.

고령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생각이운데 △이제 나도 많이 늙었어, 전과 달라. △이 나이에 무얼, 전에도 그런 것 없이 잘 살았는데. △이제 다 끝난 인생 아닌가. △그대로 이렇게 살다 죽지 뭐.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대로 버려둬라. △나 같은 늙은이는 빨리 가야지. △요즘 젊은 것들은-. △이놈들이 어른을 몰라보고. 등 다양하다.

모두가 마음이 늙었고 노화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삶에 관심을 갖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익히는 등 흥미와 호기심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가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담보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장수하는 지름길이다. [4]

건강강좌 침술 강의 성황 3월엔 ‘기공의 실제’ 강의

한 겨우내 쉬었던 토요 건강포럼이 올해 처음으로 추위가 맹위를 떨친 지난 18일 토요일 오후에 열렸다. 강연 주제는 관심을 모은 ‘침과 뜸 이야기’로, 평생을 한국 침술 발전에 바쳐온 한국침술연합회 이석기 회장이 연사로 나왔다.

이석기 회장은 이날 침술이란 가늘고 예민한 바늘로 인체의 일정한 부위혈(穴)-침자리 經穴, 奇穴, 新穴-에 자극을 주어 인체의 기혈(생체 에너지)을 조절해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방법이라면서 ‘침’은 음양평형조절기능, 그리고 ‘뜸’은 면역력 증강과 건강증진에 좋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침술의 발상지는 우리나라로 기원은 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증거로 중앙박물관에 보관돼있는 구석기 시대의 ‘돌침’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돌침’은 함경북도 경흥군 웅기면 손평동 패총에서 발굴된 것이어서 침이 고대 원시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것임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부에서 침술이 고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이라는 것은 이같은 우리나라 침술의 역사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침구술은 이어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조 까지 내려오면서 큰 발전을 이룩해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에 전파돼 현재 새로운 진료로 각광받고 있고 북한에서도 침술이 민간요법으로 활발히 쓰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거꾸로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침구사 자격시험이 수 십년 동안 실시되지 않으면서 그 수가 급속히 감소해 대부분 80을 넘은 고령

의 침구사 40여명이 남아 있을 뿐이어서 민족의술인 침구술의 퇴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해 내려오는 우리 의술의 기본원칙은 ‘일침 이구 삼약(一鍼二灸三藥)’-병이나면 우선 침과 뜸을 통해 치료하고, 약은 필요한 경우에 처방 한다는 것이라며 조선조 때 세종은 한글 창제와 아울러 침술 발전에도 큰 업적을 남겼으며 단종 때는 침구법을 만들었고, 성종은 침구의를 내의원과 구분해 독립법으로 정했으며, 인조 때는 ‘침구경험방경’의 초판 발행, 그리고 효종은 ‘침의창’을 세우는 등 고종 때 까지도 침술 의료에 힘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한편 3월18일 열릴 토요건강포럼은 ‘기공(氣功)과 실제’란 제목으로 기공인 맹필재씨(사진)의 강의와 노력기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기공법에 대해 실습을 통해 알아본다. [4]

‘노인냄새’를 없애자

오혜영 박사(하나로 의료재단 진료부장)에게 듣는다

대담 : 이보길 편집위원

사람은 서로에게서 나는 냄새를 체취라 하여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며 생활하고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

도대체 이런 좋지 않은 냄새의 정체는 뭐고 이걸 퇴치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오혜영(의학박사) 하나로의료재단 진료원장을 만났다.

-도대체 그 노인 냄새는 왜 나는거죠?

“노인이 되면 체취가 강해지면서 독특한 냄새를 내게되는데 이게 소위 ‘노인성 냄새’라고 하죠. 이 냄새가 나는 원인은 신체의 노화에 따른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져 노폐물의 분해와 배출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노인이 되면 피지중의 지방산이 과산화지질이란 물질로 산화돼 특유의 노인 냄새가 납니다. 노인 냄새의 주원인이 되는 물질은 ‘노넬알 디하이드’와 ‘이소길초산’으로 이 ‘노넬알 디하이드’는 피하지방 중에서 ‘팔미트 올레인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분해하면서 생깁니다. 이 ‘노넬알 디하이드’는 유년 시기나 청년 시기에는 거의 생성되지 않지만 40대 이후부터 체내에서 생성되기 시작해 노령으로 갈수록 점점 많아지죠. 인체는 대사과정을 통해서 이 ‘노넬알 디하이드’를 체외로 배출하는데 이 배출된 이 물질의 냄새가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이라할 수 있죠.”

-그럼 이 냄새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까요?

“노인 냄새를 근본적으로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 냄새를 줄이거나 느낄 수 없게 하는 방법들은 있죠. 첫째, 노폐물은 배설 작용 및 땀샘을 통하여 배출되며 호흡기를 통해서도 배출 됩니다. 따라서 이 냄새를 없애려면 항상 몸을 깨끗이 하는건 물론이고 실내 공기를 순환하여 숨쉴 때 나온 물질이 실내에 달라붙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게 중요한데 요즘같이 추운 날에도 낮에 10분만이라도 환기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내에 공기정화기를 놓거나 향수,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찮더라도 스스로가 ‘깨끗해야 냄새 안난다’하는 생각을 갖고 목욕을 자주하고 청결을 유지하면 보통 젊은이나 다름없이 특별한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다. 목욕할 때는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을 비누나 목욕용 샴푸로 깨끗이 씻어 내는게 좋습니다.

두번째로 의복을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젊은이보다 더 자주 의복을 세탁하도록 하고 속옷도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구도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대개 우리는 습관적으로 침구는 자주 세탁 하지 않고 생활 하는데 그 이유는 의복처럼 금방 더러워지지 않겠지 하는 생각과 또 세탁하기 불편하기 때문이죠. 노인방에서 나는 냄새의 상당 부분은 이 침구에서 난다는걸 알고, 되도록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셋째로 의복과 침구를 햇볕에 소독하는 게 효과가 큼니다. 노인이 있는 방



오혜영 박사

은 햇볕이 많이 들수록 좋죠. 햇볕만큼 탈취 소독 작용에 효과적인 것은 없죠. 그래서 아파트 같으면 햇볕이 좋은날 의복이나 이불, 요 등 침구를 베란다에 내놓고 햇볕을 쬌이는데 좋죠. 그리고 운동을 하면 노인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도 운동을 계속하면 우리 몸의 지방 대사 과정에서 산화지방을 모두 에너지로 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해서 원인물질이 생성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같은데서 보면 지린내가 몹시 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요실금이나 변실금도 노인 냄새의 주요한 원인인데요.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과 벽이 두꺼워지고, 또 이로 인해 방광의 확장 능력이 떨어져 방광안에 저장할 수 있는 소변의 양이 350~400mL에서 250~300mL로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웃거나, 재채기, 놀란다거나, 달리기 등으로 방광이 압박을 받으면 소변이 새어 나오게 되죠. 또 항문 근육과 신경, 골반 신경이 약화되면서 변이 조금씩 새어나와 속옷에 묻는 변실금도 노인에게 흔하죠. 그리고 남성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해 소변을 볼 때 속옷에 소변이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노인 냄새의 주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은 전립선 검사를 받는게 좋습니다.”

-입 냄새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입 냄새가 심한 사람의 입안에서는 휘발성 황화합물질이 잘 검출됩니다. 이것은 입 안에 늘 있는 비정상 세균이 휘발성을 띠기 때문에 악취로 느껴지는 겁니다. 침 성분은 이런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져 ‘구강건조증’이 오기 쉽고, 이 때문에 세균의 증식이 억제되지 않아 구취가 심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흡연은 ‘구강건조증’을 악화시켜 입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담배를 끊으면 입 냄새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구요.”

-술 냄새도 더 심하게 나는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죠. 대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마시는 술은 비교적 값이 싼 종류이고 안주는 거의가 찌개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기는 냄새가 술 종류와 술안주에 따라 심하고 덜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술을 마시면 술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된 후 다시 아세트산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분해된 산물들이 혈액을 따라 돌다가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입 밖으로 나올 때 심한 냄새가 나게 되죠. 여기에 옷에 밴 안주 냄새와 함께 풍기기 때문에 더 심하게 냄새가 나는거죠.” [4]

이석홍 원로회우 별세

이석홍 원로회우가 2월 6일 노환으로 별세, 중앙대병원(흑석동)에서 8일 오전 발인했다. 1922년 1월 20일 전남 영광에서 출생한 고인은 1945년 일본 와세다 실업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신보 정경부 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진출, 이



신문 정경부차장 조사부장 지방부장 사회부장등을 지냈다. 언론계를 떠나서는 61년 사단법인 한국농지개발협회 편집실장, 남진 토건 상임이사, 유한물산 상무이사, 남진토건 상임이사 회장, 대한언론

인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국문]

【弔辭】 대한언론인회 키운 '마당쇠'

김재영(본회 원로회우)

李錫弘 형!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 매서운 칼 바람도 봄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피해가지는 못했던지 입춘이 지난 2월 6일 대보름날, 당신의 고향인 이곳 남도에는 아



고 이석홍 회우 빈소.

침부터 함박눈이 소복이 내려 쌓였소.

눈 속에서 꽃망울을 여는 하얀 복수초와 앵초가 우리집 마당에도 꽃망울을 내밀었는데 봄이 되면 꼭 한번 오시겠다던 약속도 못 지키고 형은 눈이 오는 그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멀고 깊은 눈길을 하염없이 걸어가고 말았구려...

이석홍! 흰칠한 키에 깡마른 몸매, 얼핏 보면 해파리보이는 체구인데 그 엄청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짹짹 울리는 목소리며 반듯하고 기민한 동작에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대쪽 같은 성격의 의리와 였다. 그러나 강직한 그런 카리스마의 단면과 달리 그는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에 하루에도 몇 번 씩이나 사무실에 걸려있는 대형 거울을 쳐다보며 옷 매무새를 여미는 해심보이였다. 또한 그는 남녀노소를 안가리는 대인관계로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온화한 면모를 갖춘 감성파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가 대한언론인회 회원이 된지 장장 30년이 넘었는데 그를 모르는 회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는 대인 관계를 중요시했던 위인이다. 그래서 박성룡, 홍돈섭, 김천수, 김재희, 이규태, 유용규, 백동주, 홍동석, 문계준 회우 등 유난히도 가까이 지냈던 회우들을 먼저 보내고 그 뒤를 따랐는지 모른다.

이석홍 회우는 1922년 전남 영광군 불갑산 근처의 한 토착 부르주아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45년 일본 도쿄 와세다 실업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귀국, 48년 광주신보 정경부 기자로

입사, 57년 동사 조사부장, 59년 지방부장, 60년 사회부장 등을 거쳤으며 6·25전쟁 때는 광주 CAC 사령부 출입기자로 동부전선 종군기자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가 13년간의 언론생활을 그만두고 실업계에 뛰어든 것은 61년 유한물산, 남진토건의 상무이사를 맡으면서부터. 그는 일찍이 이재에도 눈을 떴다. 그는 광주동명동 주택가에 있던 대지 2백평의 2층 저택까지 정리하고 무대를 서울로 옮겼다. 이석홍 회우가 본회에 입회한 것은 81년, 노환으로 타계하기까지 30여년간을 언론인회에 몸담으면서 봉사했다.

그는 고 홍돈섭 부회장이 산악회장으로 있을 당시 총무직을 맡아 동분서주했다. 그 당시 본회의 연례행사나 산악회 행사 등 모든 대외행사는 거의 산악회가 주관하던 때라 그는 우리회의 마당쇠이었는데 정력적인 그는 지친 기색도 없이 스스로를 '회의 마당쇠'라고 자칭하며 웃곤 했었다. 앞으로 우리 회보에서 이와 같이 헌신적이던 그의 발자취를 찾아보기는 힘들게됐다. 다만 '大韓言論人會報'라는 제호를 서예가이며 은행 중역이었던 큰형 이석형웅에게 부탁해서 쓴 것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석홍! 어쩌면 눈앞에 아물아물 떠오르는 얼굴이며, 입술에 맴도는 다정한 이름이다. 다정다감했던 석홍형, 죽음에 대한 눈물과 슬픔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요, 우리들은 봄이오는 길목에서 당신을 보냈지만 머지않아 봄이 오고 백화천초 피어나면 당신을 찾아가서 옛이야기의 꽃을 피우리라. [국문]

현영건 원로회우 별세

현영건 원로회우가 88세를 일기로 1월 1일 별세했다. 대한언론인회는 1월 2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수유1동 성당 고인의 빈소에서 흥원기 회장, 김은구 상담역, 김해도 편집고문, 이태영 부



출한 고인은 한국일보 창간요원으로 참여, 사회부 차장 부장을 지냈고 그 후 서울신문으로 옮겨 편집국부국장을 역임했다.

언론계를 떠나서는 한국관광공사 홍보부장, 도쿄지사장, 자문위원, 한국관광문화연구소 대표, 롯데관광 상근고문을 역임하기도 했다.

고인이 펴낸 '한국' (일본어 판)은 한국의 위상을 해외에 널리 홍보한 책자로 크게 호평을 받았다. 유가족 중 따님 현순조 여사는 지난 해 대한언론인회로부터 효행상을 수상한바 있다. [국문]

【弔辭】 언론·관광업계에 큰 발자취

홍원기(본회회장)

존경하는 고 현영건 선생님!

임진년 새해 벽두에 이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입니까. 노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소식이 가끔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서둘러 가시다니 저희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혼란한 격동의 세월을 울곧은

언론인으로 살아오시면서 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셨던 선생의 가심은 가뜩이나 원로의 목소리가 아쉬운 오늘, 우리 언론계로서는 큰 어른을 잃은 충격을 느끼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은 생전에 대한언론인회 자문위원으로 큰 벼림목이 되어주셨으며 높은 경륜과 학식으로 우리시대 언론의 참 스승으로 존경을 받아오셨습니다. 선생은 1924년 서울에서 출생하시어 중앙고와 일본 도쿄전수대 전문부를 수료하시고 조선신문학원을 마친후 1945년 해방이 되자 서울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해 한국일보 사회부장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1964년 언론계를 떠나신 뒤 선생은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장, 한국관광문



고 현영건 회우 빈소에서 홍원기 회장이 조사를 읽고 있다.

화연구소 대표를 역임하셨으며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롯데관광 상근고문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선생은 언론계와 관광업계에 종사한 경험을 자산으로 역저 일본어판 '한국'이란 책을 저술하시는 등 학구적인 면모도 남다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배들은 선생의 숭고한 정신과 해안을 계승하여 자유언론창달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제 이승을 떠나시는 현영건 선생님. 부디 구심 평생 중 아름다운 기억만 간직하시고 모든 고통과 번민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선생의 명복을 빌며 졸지에 상을 당하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문]

언론가 소식

세계일보 사장 김병수 씨



김병수 세계일보 편집인 겸 부사장(56·사진)이 2월 1일 세계일보 제13대 사장에 취임했다. 김 신임 사장은 1991년 세계일보에 입사해 경제부장 산업부장 체육부장을 거쳐 2006년 이후 편집인을 맡아왔으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등을 겸임하고 있다.

'이광훈 추모 문집' 출판기념회

관훈클럽(총무 김민배) 신영연구기금은 지난 2월 14일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이광훈 전 경향신문 논설주관을 추모하는 '이광훈 문집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관훈클럽 회원은 물론 고인이 몸담았던 경향신문 사우들과 대한언론인회 회원이 다수 참석했다.

문집출판위원장은 이종석 본회 회우(위암 장기연생기념사업회 회장·본회 회우)가 맡았다. [국문]

회우동정

(가나다 순)

한국케이블TV협회장



양휘부(전 방송광고공사 사장)회우=2월 24일 열린 한국케이블TV협회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양 회우는 KBS보도제작국장과 해설위원장, 창원총국장 등을 거쳐 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공보특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불멸의 혼 손기정’ 출판기념회



이태영(전 중앙일보 편집국색선국장)본회부회장=2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 파크호텔 올림픽아홀에서 저서 ‘불멸의 혼 손기정’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건국기념사업회 부회장

제재형(본회고문·사진 위)·박 실(전 국



평화언론포럼 제5대 회장



최귀조(전 한국경제 편집국부장)본회 이사=지난 2월 19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도원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있는 평화언론포럼 긴급운영위원회에서 제 5대 회장에 선출됐다. 평화언론포럼은 전직 언론인들 모임으로 최귀조 이사는 지금까지 이모임 상임부회장이었다.

회의원·사진 아래)회우= 지난 2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대한민국의견사업회 총회에서 제재형 고문은 상임부회장, 박실 회우는 부회장에 각각 선임됐다.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농협 056-01-105628 (가나다 순, 괄호안은 납입연도)

강승훈(10,11,12)	고학용(10,11)	구중서(10,11)	권영국(44년생)(12)
권혁승(10,11,12)	김경래(9,10,11)	김경중(12,13)	김광희(9,10,11)
김기원(12)	김명수(입회비)	김시복(9,10,11)	김영택(9,10,11)
김익수(12)	김인규(10,11,12)	김재관(8,9,10,11)	김정훈(11)
김종하(11,12)	김창구(9,10,11,12)	김충한(11)	김태선(9,10,11)
김택근(입회비 및 12)	김한구(12)	김한영(12)	김호기(12)
김흥기(11)	노영태(12,13)	문명호(11)	문준철(12)
민병문(11)	민정기(12)	박광춘(12)	박기병(12)
박승구(12)	박승채(12)	박영식(11)	박응수(10,11)
박준구(11)	박진환(입회비 및 12)	백일진(12)	손주환(10,11,12)
송용식(9,10,11)	송형목(9,10,11)	신정호(12)	안광식(11,12)
안종화(10,11,12)	안흥열(10,11)	양휘부(9,10,11,12)	여구만(12)
오전식(7,8,9,10,11)	오판룡(11,12)	우경식(12)	위상욱(12)
유용현(11)	유일연(10,11)	윤용호(10,11,12)	은종일(12)
이두석(10,11)	이병대(12)	이병훈(8,9,10,11)	이세환(12)
이연상(11)	이영일(12)	이용호(9,10,11)	이운래(11,12)
이재원(09)	이정원(입회비 및 12)	이종식(11,12)	이종윤(12)
이준우(11,12)	이창열(12)	이 철(11)	이철영(입회비 및 12)
이재주(9,10,11,12)	이형균(12)	이희경(11)	인보길(12)
		임응식(10,11)	임한순(11)
		정광현(9,10,11,12)	정구호(9,10,11)
		정연복(12)	정운종(12)
		정운택(12)	정웅교(10,11,12)
		정준모(11,12)	정진규(10,11,12)
		정한상(11)	정형수(9,10,11)
		정회준(11,12)	제재형(11)
		조관희(10,11)	조규석(12)
		조규진(11)	조용중(11)
		조재린(10,11,12)	조창화(9,10,11,12)
		주영관(11)	최병요(9,10)
		최서영(9,10,11,12)	최영정(9,10,11)
		최재규(11,12)	한강수(11,12)
		허경구(12)	허동진(9,10,11,12)
		호영진(10,11)	홍승국(12)
		황순종(10,11)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괄호 안 전직)



강두모(姜斗模) 1954년 1월 4일생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달빛마을 현대아파트 403-503(412-754)
신아일보 사진부기자(76), 국민일보 사진부기자(88), 사진부장,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2003), 국민일보 편집위원(2005)



김명수(金明守) 1941년 11월 6일생 011-244-915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7 더샵 아일랜드 파크 102-312(150-874)
경향신문 기자, 편집부 사회부 수도권부 차장, 편집부장, 정치부
장, 문화부장, 논설위원, 한국기자협회 보도분과위원장, 한국신문
방송편집인협회 운영위원장, 한국신문협회 이사, 경인일보 대표
이사 사장, 현 신아일보회장



김성묘(金省妙) 1958년 11월 21일생 010-4039-2461
서울 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15-103(121-704)
경향신문 출판국 소년경향 기자(83), 출판국 레이디경향 주간경향
기자(87-96), 뉴스인 뉴스 편집국장(2009)



김택근(金澤根) 1955년 2월 22일생 010-2787-8651
서울 서초구 방배2동 970-26 드래곤 밸리 501호 (137-062)
경향신문 편집국 편집부기자, 차장(92), 매거진 팀장(95), 종합편
집장(96), 문화부 국장대우(2000), 편집국부국장(2004), 논설위원
(2009), 2011년 퇴사



박진환(朴珍桓) 1952년 8월 19일생 010-2413-8851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꽃메마을 아이파크 102동 1503(448-
161)
경향신문 편집국기자(78), 체육부차장, 레저부장, 체육부장(96), 98
년 퇴직



이육용(李勗鎔) 1943년 4월 13일생 010-2360-8144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 7차 111동 203호(우 135-232)
한국일보 교열부기자(69), 동아일보 교열부기자(77), 차장 부장 편
집위원, 문화일보 편집위원(99)



이원창(李元昌) 1942년 7월 9일생 02) 516-6066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6-16 상지 리츠빌 5차 C동 101호
(우135-957) 경향신문 논설위원, 관훈클럽 감사, 국회의원(16대
한나라당 전국구) 인터넷신문 뉴스파인더 회장 (현)한국방송광고
공사 사장



이정원(李廷元) 1949년 1월 25일 017-592-2012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3 신반포 8차 아파트 307-501(137-950)
한국일보 기자, 일간스포츠 체육2부 차장, 편집위원, 강원도 공보
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심의위원



이철영(李哲永) 1943년 7월 10일생 011-349-4776
서울 양천구 목1동 현대하이페리온 203-1404(158-051)
KBS 기자(78), 부다페스트 특파원 (동구지역) (89-92), KBS 활
영기자(2001)

▶ 주소 · 전화번호 변경 ◀

이배영 회우=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탑마을 선경아파트 110-503
(우 463-928)
이 철 회우=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 3동 후곡마을 17단지 3동 703호
010-3759-6077
장덕상 회우=010-2280-1935
지정식 회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0길 15 우성아파트 104-302

▶ 회우 가족 동정 ◀

박 실 이사 자부 피아노 협주 공연
본회 박실 이사 자부 김은란 여사가 새
봄을 맞아 임평용감독의 지휘로 3월 7

일 하오 8시 분당 성남아트홀 콘서트
홀에서 국내 유수 교향악단인 성남 시
립교향악단과 피아노 협주공연을 갖는
다. 연주할 곡목은 악성 베토벤의 아름
다운 피아노 협주곡이다.

(이상 2월 23일 현재)

2012 KBS 방송지표

하나되는 대한민국 글로벌KBS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HOW TO LIVE
SMART

당신의 말을 이해하다

David Copperfield

삼성전자 스마트TV모델
데이비드 카퍼필드

당신의 손짓에 반응하다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인 당신에게는 현실적인
TV의 기적이 시작된다

55형 ES8000

The Future of Smart TV, Now
Samsung **SMART TV** 삼성스마트TV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마술보다 더 마술같은 TV의 기적

스마트 인터랙션
당신의 음성, 행동, 얼굴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기적

스마트 콘텐츠
가족과 함께 클라우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적

스마트 에볼루션 (2013년부터 판매예정)
에볼루션 키트만 꽂으면
새로운 TV가 되는 기적

삼성전자

SAMSUNG